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2016 경기문화재단지원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生まれる、これ

産物を産めたい

ノマドワークフレンドリーな運営
 フリースタイルを実現したい

新しい研修を取り入れたい

「産物コンシェルジュ」
 地元の特産品力を高めたい

イテ運営
 少なからずの事に身をまかせたい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2016 경기문화재단지원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Prologue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Part 1

전체연수개요 및 주요일정표

Part 2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Part 3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컨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한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Part 4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들

Part 5

함께 한 기록들

Part 6

함께 한 사람들

Epilogue

이제 다시 지역이다! _ 연수 합평회



Prologue

다르
문
화
를
분
리
하
는
것
은



Don't forget 1993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는 '늘이는 자' 또는 '두드려서 펴는 자'를 뜻하며 폴리페몬(Polypemon) 또는 다마스테스(Damastes)라고도 한다.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및 '프로크루스테스 체계(Procrustean meth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travel'의 어원은 '고통', '고난'을 뜻하는 'travail'이다. 여행이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쾌락이나 오락으로 여겨지게 된 건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에 이르러서다.

인간은 과거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nomad)의 시대를 거쳐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여행은 일상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장자(B.C 369~289)는 '성심(成心)', 즉 '구성된 마음'이라는 편견을 문제 삼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장자가 '성심'을 문제 삼는 이유는 특정한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 즉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초자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공동체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의 공동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마음으로 성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한국어를 쓰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성심의 작용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어느 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정원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툭툭 치는 미국 어린이를 보았다고 하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공동체에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면화된 '성심'은 그 공동체에서 살 때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가거나 다름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성심을 특정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심을 초차아(Superego)로 삼아 타자를 평가하고 제단하는 것이다.¹⁾

즉,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구성된 마음, 즉 성심(成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은 인간의 독선적 아집을 깬다”는 말은 여행의 장점을 말해주는 오랜 속설이다.

1) 장자&노자 《도에 따지컬기》(김영사 강신주 지음 p25) 참조

2) 여기서 말하는 파노라마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프레임’이다. 거기에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얼굴과 액션이 지워져 있다. 그때의 풍경은 자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생명의 거친 호흡과 악동이 생략된 ‘침묵의 소묘’일 따름이다. 이런 구도에선 오직 주체의 나르른 시선만이 특권 지위를 확보한다. 시선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대상은 전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뿐, 도시

“내가 로마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은 여행의 위대함을 웅변해 주는 증언이다.

혹자는 여행이라는 것의 ‘파노라마식 관계’²⁾ 라는 한계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행이 가지는 ‘직접 경험’의 권위가 가지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다른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그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각은 더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때문에 여행의 어원이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Travail 인 것이 아닐까?



인들이 보는 전원. 동양인의 눈에 비친 서구. 서구가 발견한 동양. 사실 이런 건 모두 외부자가 낯선 땅을 ‘훑기’ 바라보고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허상이다. 그 허상이 막강한 힘을 확보해 한 시대와 사회를 ‘주름잡는’ 표상이 되면, 모두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대상에 위압적으로 덧씌우는 식의 악순환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여행이란 이런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년 14쪽)

문화원은 전국 총 229개가 설립되어 있고 광역단위 16개 시도연합회를 통해 묶여 있으며, 연합회라는 기구를 통해 전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문화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있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며 그것이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연구, 조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사업이었다.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마을이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형태가 정립됨에 따라 외부 인구가 영입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등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 구성원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의 분위기와 생활 형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기존 주택이 재정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영위해 오던 지역 경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지역의 위상이 변하기도 하면서, 이른바 '베드타운'의 성격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문화가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



역의 문화적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문화원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업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광역단위인 경기도 내에 어떤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가 되고 지역의 문화정책 생산구조가 지역 정가에 맡겨지기도 하면서, 문화원이 가져가야 할 지역의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문화정책 생산기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흐름에, 경기도의 문화적 흐름에,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세계적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점검하고, 유형, 장르, 대상, 소재에 따라 분석,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본 해외문화탐방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문화원의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기획하였다.

본 기획은 4개의 키워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문화원형을 기초로 한 도시브랜드 형성의 실제 해외 사례를 탐방하고, 문화원들의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향후 어떤 비전과 대안마련이 가능한지까지 점

검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31개 시, 군 문화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 또는 지역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를 재평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관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며,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하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심층 접근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50여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학교'라는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것이 현재의 문화예술적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향후 대안과 비전 마련을 위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해체되어 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탄생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업 유형의 소개, 분석을 통해 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마을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활력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낯섦'과 그것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건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양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찾아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형태의 다른 이름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31개 시, 군 문화원을 통해 전개되는 사업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전개되며,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어떻게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세계적 문화 흐름의 어디에 접점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www.italy.it



Part 1

전체연수개요 및
주요일정표

주요일정표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경기도 시, 군 문화원 임원 및 실무자연수

○ 일정 :

■ 1차연수

• 일정 : 2016년 9월 28일(수) ~ 10월 1일(토) 3박4일

• 장소 : 일본 효고현

• 대상 : 경기도 문화 기획자

• 참여인원 : 6명

■ 2차연수

• 일정 : 2016년 11월 1일(화) ~ 9일(수) 7박9일

• 장소 : 동유럽 5개국

• 대상 : 경기도지방문화원 원장단

• 참여인원 : 18명

■ 3차연수

• 일정 : 2016년 11월 22일(화) ~ 25일(금) 3박 4일

• 장소 : 대만 타이베이

• 대상 : 경기도지방문화원 국장단

• 참여인원 : 24명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문화재단

▶ 추진일정

일시	일시
5월	기획회의 주관단체 미팅 및 여행사 선정 해외 연수지역 선정
6월 20일~6월 30일	경기도 내 해외연수내용 공지 및 참가자 모집
7월 1주	경기문화재단 사업지원신청서 제출
7월 3일	참가자 명단 최종 확정
9월 19일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9월 28일~10월1일	1차 연수 : 기획자 연수
11월1일~11월9일	2차 연수 : 경기도지방문화원 원장단 연수
11월22일~11월25일	3차 연수 : 경기도지방문화원 사무국장단연수

▶ 왜 가야 했는가

1. 제1차 기획연수

- 일본 아와지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사업 사례연구
- 청년 기획자와 예술가가 마을과 만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례연구
- 유희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창출 사례 집중 조명을 통한 한국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예술가와 기획자의 국제교류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공진화 방안 모색

2. 제2차 기획연수

- 대도시의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 역사의 현장이, 현재적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지형지물을 이용한 공간활용 극대화의 사례 탐방
- 비극적 근현대사 공간을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 사례 탐방
- 신화와 관광이 결합된 지역 활성화 사례 탐방찾기

3. 제3차 기획연수

- 선진지역 사례 연수를 통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대안 마련
-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모색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추진
-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컨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 도시, 마을 재생 프로젝트 및 도시 브랜드 사례 연구 차원의 연수
- 지역민과 예술인과의 공존으로 인한 마을 재생 사례 탐방

▶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 사전 오리엔테이션,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개별 연수
_ 원장단/국장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50% 지원/이하의 자부담

▶ 전체 일정표(안)

○ 1차 기획단 연수(안) _ <로컬을 디자인하다>

기획의도

- 지역커뮤니티사업 사례연구
- 청년기획자와 예술가가 마을과 만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례연구
- 예술가와 기획자의 국제교류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공진화 방안 모색

개요

- 장소 : 일본 효고현 일대
- 일정 : 2016년 9월 28일(수)~10월 1일(토)
- 정보 : 일본 아와지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커뮤니티사례연구
- 특이사항

▶ 아와지 하타라꾸가타치 연구섬 <로컬을 디자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노마트카페 간담회

_ 폐교활용_레지던스 작가 및 운영 청년기획자 간담회

▶ 아와지 하타라꾸가타치 연구섬으로부터 태어난 프로젝트 사례연구

“이질적인 것과의 연결, 도시와 농촌의 연결가능성은 거점을 통해 개발된다”

■ 지역의 의미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힘 _ 연수사업

■ 지역커뮤니티 거점사업 _ Nomad사업

■ ‘일거리’창출 및 채용지원사업 _ 콜라보 네트워크사업

▶ 기업과 지역의 연결 모색 사례연구

■ 유메부타이 마을의 <기적의 식물원>프로젝트

■ 토쿠시마 <오오츠카미술관> 탐방 _ 미술작품전시의 새로운 가능성

전체주요일정(안)

날 짜	지역	일정
제1일 9/28	인 천 오사카/나라	인천출발 - 일본 오사카(간사이공항)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지역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_ 도톤보리 / 남바 등 고베
제2일 9/29	아와지/ 도쿠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메부타이(夢舞臺) 사례연구 도쿠시마 <오오츠카미술관>
제3일 9/30	아와지/ 도쿠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마트카페 간담회 <하타라보지마 사업> 담당자 간담회 마을사례연구
제4일 10/1	고베/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베 지역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일본 오사카(간사이공항)출발 - 인천도착

○ 2차 원장단 연수

추진방향

- 지형지물을 이용한 공간활용 극대화의 사례 탐방
- 비극적 근현대사 공간을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 사례 탐방
- 신화와 관광이 결합된 지역 활성화 사례 탐방

개요

- 장소 : 동유럽(발칸반도)
- 일정 : 2016년 11월 1일(화)~11월 9일(수) 7박 9일
- 정보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 특이사항
 - ▷ 문화원형(성곽과 지형)을 이용한 공간활용 사례연구
 - ▷ 신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연구

♣ 아우구스투스의 포럼 참관

_ Pula시청사 방문 담당부서 간담회

_ 고고학 박물관 분관 해설위원의 해설 및 간담회

- ▶남유럽 분단 및 전쟁의 비극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탐방(모스타르 등)
- ▶자연(생활)환경을 이용한 지역특성화 사례연구(플리트비체호수국립공원, 라스토케마을탐방_ 간담회개최)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특성화 사례연구

♣ 전통마을 탐방 및 간담회 _ 농촌! 예술가와 만나 어떻게 변하는가?

_ 마을조성사무국 및 실무운영자 미팅 UGOSTITELJSKI PASTO
RASTOKE

전체주요일정(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1 일 차	인천	TK 091	23:50 ~	인천 출발 - 이스탄불 항발
2 일 차	이스탄불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루블라나 (슬로베니아)	TK1053 전용버스	04:30 07:15 08:35	문화원형(성곽과 지형)을 이용한 공간 활용 사례연구 I 성마르코 성당, 자그레브 대성당, 돌의 문, 올드타운 용의 다리, 성 프란체스카 성당, 프레세르노브 광장
3 일 차	루블라나 포스토이나 블레드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전용버스	전 일	문화원형(성곽과 지형)을 이용한 공간 활용 사례연구 II 카르스트동굴 블레드 섬, 마리아성당
4 일 차	자그레브 라스토케 플리트비체 자다르 시베닉	전용버스	전 일	자연환경을 이용한 예술작품 사례연구 물레방아간, 전통 마을 탐방 및 간담회 -농촌이 예술가와 만나 어떻게 변하는가? (UGOSTITELJSKI RASTOKE)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 정
5 일 차	시베닉 트로기르 스플릿	전용버스	전일	신화와 지역성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례연구 I 바다오르간, 다섯 개의 우물 아우구스투스의 포럼 참관 -Pula 시청사 방문 담당부서 해설위원의 해설 및 간담회 니로드니 광장, 카메르레고 요새, 성로브로 성당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리바거리 스플릿 대성당, 그레고리우스 동상, 구시가지
6 일 차	스플릿 두브로브닉	전용버스	전일	플라차 거리, 오노플리안 분수, 세르비아 정교회, 스폰자 궁 과 시계탑 렉터 궁전(외곽), 대사원, 성벽투어
7 일 차	두브로브닉 코토르 (몬테네그로) 페라스트 부드바 두부로브닉 (크로아티아)	전용버스	전일	신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례연구 II 12~15세기 흔적이 남아있는 성벽 안 구시가지 코토르를 둘러싼 성벽, 피요르드 해안 부드바, 성 트리니티 교회, 구시가지
8 일 차	두브로브닉 모스타르 (보스니아) 사라예보 이스탄불	전용버스	전 일	남유럽 분단 및 전쟁의 비극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탐방 모스타르 다리, 이슬람 거리 비쉬차르사 광장, 세빌리 샘, 라틴다리, 라틴스카 다리 가즈 하스레브 베이 모스크, 로마 카톨릭 대성당 사라예보 출발/ 이스탄불 향발 이스탄불 도착 후 환승
9 일 차	이스탄불 인천	TK 090	01:00 16:55	이스탄불 출발/ 인천 향발 인천 도착 및 해산

○ 3차 국장단 연수(안)

추진방향

- 도시, 마을 재생 프로젝트 및 도시 브랜드 사례 연구 차원의 연수
- 지역민과 예술인과의 공존으로 인한 마을 재생 사례 탐방

개요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 일정 : 2016년 11월 22일(화)~11월 25일(금)
- 비용 : 약 100만원 (1인자부담 : 500천원)
 - 포함내역 : 왕복 항공, 숙박, 현지 교통, 관광입장료, 유류할증료, 공항세
 - 불포함내역 : 개인 비용 (식음료, 부대시설 이용, 기념품 구입 등)
- 정보 : 대만의 수도, 급격한 경제 개발의 중심지이고 현재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도시의 하나. 중국대륙의 한문화를 중심으로 타이완 토착민 문화, 일본문화, 유럽문화 등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
- 특이사항

▶타이페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촌락, 현재는 지역민과 예술인과의 공존으로 국제행위예술촌으로 탈바꿈

♣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 (민간주도형 마을재생 사례연구)

- _ 마을 주민간담회 (입주작가 및 주민)
- _ 예술촌 조성 사무국 및 실무자 간담회 (게스트하우스운영)

▶지역의 유희시설인 100년 된 술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 활용 사례(화산문화지구) 및 구 시청사를 활용 레지던시 프로젝트 추진 사례 탐방(당대미술관)

♣ 화산문화지구 / 당대미술관

- _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연구(정부 주도형 사례 연구 I)
- _ 작가 간담회/기관 간담회 (당대미술관)

▶지역의 유희시설인 일제 식민지 상업시설 및 학교시설을 활용, 복합문화 공간 조성 활용 사례(송산문화지구)

♣ 송산(松山)문화지구 탐방 (정부 주도형 사례 연구 II)

- _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연구

전체주요일정(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1일	인 천 타이페이		11:00 12:40	인천출발 - 도원국제공항 도착 국립고궁박물관 총렬사 웅산사 및 화시지에 야시장 탐방
제2일	타이페이		전 일	아류해양공원 화산문화지구 / 당대미술관 타이페이 서문정거리
제3일	타이페이		전 일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 지우편 송산(松山)문화지구 탐방
제4일	타이페이		전 일 13:50 17:10	타이베이 마을지도 만들기 -일제 식민지를 거쳐 일본화된 도시분위기와 지역 정서가 맞물려 독특한 거리(골목)가 조성되어 있음 도원국제공항 출발 -인천도착 후 해산



Part 2

1차 기획연수

로컬(Local)을 리디자인하라

“아와지시마(淡路島)로 부터
〈일〉을 창조하다!”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경기도 문화기획자 연수

I 연수개요

1. 추진목적

- 일본 아와지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사업 사례연구
- 청년 기획자와 예술가가 마을과 만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례연구
- 유희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창출 사례 집중 조명을 통한 한국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예술가와 기획자의 국제교류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공진화 방안 모색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기획자 연수
- 기간 : 2016년 9월 28일(수)~10월 1일(토) 3박4일 일본효고현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문화재단
- 참여인원

연번	소속	직책	성명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2		사업팀장	박현미
3		팀원	오다예
4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선임	임은옥
5		문화재생팀 주임	이진실
6		문예진흥실 주임	이충림

3. 주요일정

시간	지역	상세 일정
9월 28일 (수)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공항-간사이공항
	오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톤보리(오사카)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하천 재생 및 관광 활성화 사례조사
	고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랜드(고베) - 수변 환경을 활용한 도시경관 조성사례 조사
9월 29일 (목)	도쿠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오츠카 미술관 - 기업과 지역의 연결 모색 사례 조사 - 레플리카를 활용한 복원 전시 및 아카이빙 사례 조사
	아와지 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 <하타라보지마>사업 기획자 미팅 - 도미타상, 야마구치상
9월 30일 (금)	아와지 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식당 운영자 미팅 - 지역특산물(시라스) 활용 사업 모델 개발 사례 • 노마드 카페 간담회 - 폐교활용 레지던스 작가 및 운영 청년기획자 간담회 • 체험형 딸기농장 방문 및 농장기획운영자 미팅 -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체험형 농장 운영 사례 조사 • 기타사카 양계장 홍보관 방문 - 상업적 공간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 사례 조사 -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사업 파생 사례 조사 • 아와지아트센터 운영 관계자 및 타누키(너구리)축제 예술감독 미팅 - 지역거점 문화공간 활용사례 - 지역시장 축제의 지역민 참여도 제고 사례
10월 1일 (토)	아와지 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시마 예술가 인터뷰 (도예가 니시무라) • 타누키 축제 현장 방문 - 지역시장 축제 현장 사례
	오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 유메부타이 방문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이공항 - 김포공항

4. 기대효과

- 선진문화시설 연수 기회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 방문국 문화기관 및 문화프로그램 교류 확대

II 연수지역 및 단체소개

1. 효고현 아와지섬은?



- 효고현은 교토와 오사카의 서쪽에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동해, 남쪽으로는 세토나이 해(혼슈 서부와 규슈·시코쿠에 에워싸인 내해)에 면하고 있음.
- 현청소재지는 고베이며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졌다던 진도 7.2의 지진 진앙지가 아와지섬(淡路島)이었음.

- 아와지시마는 면적 592km² 로 일본의 주요 4개 섬과 오키나와, 쓰시마에 이어 일본에서 7번째로 넓은 섬으로 아와지 시, 스모토 시, 미나미아와지 시의 3개의 행정시가 존재하며 스모토 시가 중심도시의 역할을 함.
- 아와지시마의 기후는 온난하나 강수량이 적고 섬 둘레는 단층애로 둘러싸여 아와지 평야 외에는 평지가 없어 산지 사면까지 경지로 이용되는 등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며 화훼·과수·양파 재배와 낙농이 활발함.
- 고베·나루토 간에는 페리선박으로 연결되어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8년 4월에는 3911.1m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아카시해협대교가 개통

섬



〈아와지 하타라꾸가타치 연구섬〉은

섬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살려 기업, 생업 레벨 활성화나 상품개발을 서포트 합니다.

섬의 외부로부터 강사진을 섭외, 다양한 강좌와 상품개발을 통해 관광과 먹거리를 테마로 '섬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¹⁾

かん農家)

芸家)

林水産省次長兼農政

建築家)

主)

な いい

1) 본 프로젝트 공식 브로셔 중 (실천편)에 기재된 내용 번역함.
2)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브로셔의 프롤로그 내용
3) '일하는 보물섬'이라는 뜻으로 착명한 프로젝트명

일하는 사람과 미래를 열다!²⁾

함께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거나,
지구 어디에도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거나,
나도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되거나!!!

저희들은 [일하다]라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내재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른 인생과 만나는 순간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하타라보지마³⁾]는 아와지섬을 중심으로
〈일하는 힘 키우기〉, 〈일거리의 거점 만들기〉, 〈일하는 커뮤니티 만들기〉의
3가지 목표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지원함과 동시에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좋은 말로 표현하긴 어려워도,
여러 사람과 만나고, 그 지혜와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혼자서 도달할 수 없었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섬에서 함께,
보다 더 '재미있는 <일>'에
보다 더 '재미있는 세계'로
날개를 달고 날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아와지 하타라쿠 가타치 연구섬>이란?⁴⁾

<아와지하타라쿠가타치연구섬>은 후생노동성 사업을 위탁받은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아와지시마(淡路島)에서 새로운 '일'의 형태(가타치)⁵⁾를 같이 생각하고 매력적인 노동자, 일터, 노동의 기회를 만들자는 사업으로써 2012년 4월에 탄생했다.

같은 해 5월 26~27일 Nomad마을/체육관(구 이꾸마제 2초등학교), 스모토시민공방에서 개최된 2일간의 오프닝이벤트를 시작으로, <관광, 투어리즘개발>, <농축수산물 먹거리비즈니스 개발>을 테마로, 일거리를 확장시키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6개의 연구회와 일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대상의 11개의 연구회, 합 17개의 연구회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그것을 기본으로 한 '생업'으로서의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 민과 관의 협동으로부터

이 사업은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와지섬 전체에서 추진되었다.

사업운영에는 아와지지역고용창조추진협의회(효고현 아와지현주민국, 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 스모토상공협의회, 고쇼쿠마치상공회, 미나미아와지시상공회, 아와지시상공회, 아와지지역고용개발협회)가 담당하고, 3명의 지역담당코디네이터가 처음 시작부터 활동하



4) 굳이 '연구섬'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는 이유는, 본 프로젝트가 어떤 고민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업의 개념을 잡아갔었는가에 대해, 그리고 '노동, 일, 일거리'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확장이 본 사업에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서의 고민의 과정, 그리고 결과물 도출에서 지역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고 있다.

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서포터로서 2명의 슈퍼바이저가 참가. 아와지시마 내 각 부문별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다.

2) 기술(Skill)을 몸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업주이기도 한 자신(참가자)의 일이 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참가자이기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키워드를 '상품', '기술(Skill)', '사람'으로 삼는다.

연구섬에서는 아와지시마가 자랑하는 <관광>과 <먹거리>를 테마로 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한 스킬(skill)의 습득 등,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회를 개설했다. 2012년 12월 말 시점 34개 사업자, 연인원 200명을 넘는 주민들이 연구회에 참가하고 있다.

연구회 강사는 디자이너, 요리연구가, 편집자, 퍼실리테이터, 호텔맨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로 바쁜 와중에 '섬을 위해서'를 모토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었다.

연구회의 워크숍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강사가 참가자에게 현재 일의 상황과 문제점 듣기
2. 수요, 요구의 파악
3. 1, 2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의 방침을 정하거나, 방향을 수정하면서 각각의 테마에 대한 연구 진행을 통해 신상품 개발이나 사업의 확대, 새로운 사업전개로 연결되는 실마리를 찾는다.

3) 고민도 즐거움도 함께

연구회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만드는 방법이나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장치를 만들어
가기위해 필요한 스킬을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성과는 참가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연구회를 진행해 가는 중에 강사로부터 '커리큘럼의 내
용이나 진행방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사
와 참가자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생하고, 즐거워
하며 충실하게 연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듬거리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형태를 만들어 간다.

4) 가능성의 '씨앗'을

연구회를 마칠 무렵 많은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관광농원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촌카페'
로의 오픈을 위한 '잼'을 만드는 사람, 식재료를 가공, 디
자인 해서 '메이드 인 아와지'로 만들어 내고자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는 음식점을 연 사람, 섬의 먹거리에 관한
잡지나 식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스페이스로도
이용 가능한 공간을 오픈하는 사람, 달걀생산을 마친 엄
마 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지역주민
과의 관계를 이용해 관광가이드책에 실리지 않는 독자적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 등.
연구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물건을 상품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각의 단초, 스킬을 몸에 익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
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는



〈인터뷰〉



본 글은 지난 2016년 5월 방문시 아와지하타라쿠가타치연구
구심 회장인 오니모토 에이타로우씨와 수퍼바이저인 하토리
시게끼상과의 대화를 풀어낸 것임.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 장소 :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마
- 참석자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오니모토
에이타로(아와지현민국 부국장 겸 아와지하타라쿠가타치
연구섭회장), 하토리 시게끼(수퍼바이저, graf대표), 도
미타유스케, 야마구치구미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Q 아와지시마하타라쿠가타치연구심(이하 연구심)은 지역 깨우기나 지역 내 새로
운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베스트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하구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써 아와지시마프로
젝트가 지속가능한 사례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A 지금까지 효고현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와지시마의 '연구섬'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니즈(needs)를 찾고, 그것을 주민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방향을 잡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시키기도 어려웠고 저희들도 상당 부분 수정하기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지속하고 나서 겨우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원칙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연구섬'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일하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만...

A 그렇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개념으로써의 경제구조에서 탈피, 진정한 생업으로써 자신다움을 살릴 수 있는 '노동의 방법' 찾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아와지시마에서는 '생업으로서의 노동'의 현실적 가능성이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보다 더 심플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섬으로 이주해 온 외부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잘 느껴집니다.

아와지시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Q '연구섬'프로젝트에는 가치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멤버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활동이 가능한 것을 보면 말이죠.(ㅎㅎ)

A 지금 디자인이 가능한 사람, 광고마케팅에 능숙한 사람 등 생산자를 어시스트하는 젊은 친구들이 섬으로 모여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섬 외부로 발신(상품이나 물건, 섬 내부의 홍보, 마케팅 등)하고자 할 때는 섬 외부 사람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와지시마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합니다.

Q 앞으로는 지역 자원의 가치나 지역 생활의 좋은 점 등을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연구섬'프로젝트는 꽤 커다란 미디어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연결하고, 디자인하고, 상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각각이 좋은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형 지역고용 창조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그 지점에서 함께 하는 동료나 섬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행정을 포함, 보다 폭 넓게 그리고 '존중과 공평'의 원칙으로 연결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고현 당국과도 지금까지 지역민들과의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지만, '연구섬'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접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에서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여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 '무연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섬'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발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2. 아와지 <하타라쿠카타치연구섬>의 3대 슬로건 및 사업방향

これからの「はたらく」を創る

ハタラボ島 3つの事業

 <p>はたらく 【力】</p> <p>↑</p> <p>研修事業</p>	 <p>はたらく 【拠点】</p> <p>↑</p> <p>ノマド事業</p>	 <p>はたらく 【仲間】</p> <p>↑</p> <p>採用支援事業</p>
--	--	--

■ 능력(노동지원사업) ■ 거점 (노마드사업) ■ 동료 (채용지원사업)

풍요로운 자연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싸인 섬에서 일의 본질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찾고 생애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장소를 만든다. 아와지시마에서 일하는 법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낸다.

노마드빌리지를 시작으로 정보교환이나 교류의 장의 기능을 가진 워크플레이스를 운영. 지역과 도시에 열린 장소를 제공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연다

함께 일할 동료가 필요할 때 채용 계획의 입안, 전형까지 자세한 채용지원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인재를 찾는다.
하타라보지마의 연수사업을 통해 입사 후의 인재 육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3. 아와지섬 NPO(협동조합) 결성배경

- 4년 전에 야마구치 구니코(山口国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아사히(ASAHI)맥주의 후원을 받아, “로컬을 디자인하다!” 라는 주제로 마을 내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섬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네

트위킹과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당시 10명의 구성원).

이 프로젝트에는 외부의 여러 디자이너들과 연구진이 결합되었으며 그중 도쿄(東京)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던 도미타(富田ゆうすけ)상도 함께 하였음

- 아사히 주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던 기금이 고갈될 무렵, 효고현(兵庫縣)에서 4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아와지하타라쿠카타치연구섬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해왔음
- 현재는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으며, 오픈 멤버로 활동하던 구성원들이 다수 남아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4. 아와지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섬 활동내용

■ 아와지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섬의 〈하타라보지마〉 사업 내용

- '일하는 사람과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일하는 섬의 3가지 작업을 수행함.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섬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가업, 생업 규모의 기업과 상품개발을 서포트하기 위해 일을 만드는 18가지 강좌와 취직촉진 면담회, 투어상품 개발 등을 수행

■ 아와지 섬 지역 연계활동 과정

- 아와지시마의 노령화가 심각하여 외부의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로부터 '아와지시마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주목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했음

- 주민들 중에서 프로젝트를 빛낼 수 있는 핵심멤버(스타)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내, 외부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이들을 통해 섬 안에서 일을 만들어 내는 작업 수행

- 사업비용은 효고현 전체에서 일을 만들어 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현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음

- 지원금으로는 홍보물 제작, 패키지 제작, 가공기계구매 등으로 사용함
- 2013년 good design award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이루어짐
- 1,000개의 사업 중 100개의 사업이 굿디자인(Good Design)상을 수상하였으며 구마모토의 구마몬을 포함한 2개의 사업이 특별상을 수상
- 네트워크 구축이나 참여자 모집은 처음에는 돌격해가는 모양새로 몇 차례 목적성을 드러내지 않고 가벼운 만남으로 벽을 허무는 작업을 통해 진행했고 농민, 어민, 회사원 등 서로 사용하는 어휘나 어법이 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을 달리함. 3명이 섬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
- 활동초기 1년차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으나 2년차부터 개발상품 출시, 아와지섬 주민 참여자 증가, 창업 등의 형태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효고현 담당공무원과 갈등이 있었지만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후에는 열렬한 지지자가 됨

⇒아와지시마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조금씩이지만 발전되는 모습을 보기 위한 느리지만 정성이 깃든 커뮤니티라고 보여짐. 또한, 지역의 "스타"를 발굴하여 마케팅에 활용됨. 지역의 스타가 배출됨 인해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였던 원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5. 아와지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섬 주요 기획자

- 쿠니코 야마구치 (Kuniko Yamaguchi)

- 아와지섬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중 학업의 문제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결혼 후 다시 섬에 돌아와 NPO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있는 NPO연합회 부회장 역할도 맡고 있음. 2005년 NPO법인 아와지섬아트센터 설립, 아와지하타라쿠카타치연구섬 발기인, 지역지 발간사업 및 아와지 타누키 페스티벌 추진

- 유스케 도미타 (Yusuke Tomita)

- 교토 시내에서 건축업을 하던 중, 교토와 아와지섬 인근에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야마구치상의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기 위해 아와지섬을 방문하였다가 인연이 되어 NPO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이후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아와지섬에 정착, '아와지하타라쿠카타치연구섬' 설립 후 사무국 운영에 관계한 후, '시마토웍스(섬과 일)'를 설립, 아와지시마를 거점으로 음식, 관광, 연수의 기획제안을 하고 있음



‘로컬을 디자인하다 - 지역, 크리에이티브, 일’: 하타라쿠 카타치연구섬의 <하타라보지마> 사업을 중심으로 발간된 출판물이며, 향후 국내 번역본 출간 예정임

첫 만남, 아와지시마 활동에 대한 처음과 끝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토론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무려 4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구글 번역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

■ 지역기반 활성화 사례

1. 로컬푸드(시라스しらすでん밥) 활용 사업 모델



• 가업으로 이어받은 시라스(뱅어류의 생선으로 아와지시마의 특산물) 잡이를 하던 중, 이것을 자생적 순환 고리로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갓 잡은 신선한 시라스를 활용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운영. 아와지시마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소 기획자들이 결합되어 활성화된 사례임

• 아와지시마 해안 도로변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2층짜리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1층에는 직판 형태의 가게, 2층은 음식점 형태로 시라스 활용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

• 여름에는 해변가에서 지역민들과 휴양을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팝업스토어 형태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시라스를 활용한 음식과 칵테일을 나누어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호응을 얻었음

- 시라스(しらす) 란? 우리나라에서는 실멸치로 '뱅어포'로 활용되는 류와 비슷한 멸치과 생선



시라스를 말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현재 2대째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 연구소 워크숍 참가멤버이기도 한 나카하라 상



2. 노마드빌리지(Nomado village)

- 독일출신의 독립영화감독 베르나가 영화촬영-다큐영화 주제는 '신사(神寺)'-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게 됨. 영화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들의 보관과 영화 시나리오를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였고, 베르나의 아내인 모모코상(일본인)이 아와지시마에서 폐교로 방치되어 있던 학교를 빌리게 됨
- 영화 촬영이 종료된 이후 카메라 감독이던 무기상이 운영을 하다가 떠나게 되었고, 현재는 노마드무라(Nomad 村)라는 이름의 카페와 함께 야마구치상을 중심으로 한 NPO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인 도미타 상의 아내인 쇼코상이 주말카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물은 아와지시마 스모토

(洲本)시청 건물 소유로 매월 40만원 정도의 월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고 있음(외부에는 무상임대의 형태이나 월세를 내고 있음)

- 이곳은 이전에는 초등학교였으나,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로 유학을 떠나게 되며 폐교가 되었음
- 1층과 2층은 공예 작가와 웹 디자이너들의 레지던시(작업공간)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1층의 일부를 활용하여 노마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노마드카페는 주말에만 운영되며, 인근에서 농사를 하는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자연스레 가져다 놓으시고, 주인이 없는 마켓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카페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있음
- 카페는 교무실과 교장실을 막는 벽을 허물고 아와지시마에서 채취된 흙을 발라서 리모델링 하였으며, 교무실로 사용되기 전에 도서실 공간이었던 역사적 배경을 주민으로부터 듣고 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북카페 형태의 공간으로 꾸미게 되었음
- 레지던시 공간은 컴퓨터실로 활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웹디자이너들의 입주를 신청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교실로 활용되던 공간은 목공 작업을 하는 공예 작가가 입주하여 활용하고 있음
- 레지던시를 활용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제공되는 공유공간은 영화감독과 촬영팀이 사용하던 곳으로 다함께 이용하는 주방시설과 식탁, 쉬어갈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촬영을 하며 찍었던 사진들로 전시되어 있음
- 영화감독 베르나가 좋아하던 그래피티아티스트 뱅크시의 풍자적인 작품들이 공간의 곳곳에 숨어있어 흥미를 더함

- 폐교가 위치해있는 숲속에 산책길에 “GOSSA walking museum” 프로젝트를 진행. 숲길을 따라 작품을 전시

WORK SPACE GUIDE



- 공간구성 : open space, share office, meeting space, atelier, terrace

재생 전 공간	재생 후 공간	활 용
교장실	주방	일반 및 카페 주방
직원실 및 보건실	오픈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의 정보 공유의 장 다목적공간으로 평일에는 워크숍, 연수, 문화행사 공간 주말에는 카페로 활용 중
일반교실	세어오피스	노마드 빌리지 입주 멤버 전용 공동 사무실 주말에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 일반 개방 운영
	작업실	목공예술가와 사진예술가가 입주하여 작업 중
	테라스	노마드 빌리지 입구의 휴식 공간 주말에 인근 농가에서 재배되는 채소와 잼 등의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열림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폐교가 된 노마드촌 전경. 경기창작센터 예를 들면서 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지가 질문했다. “꾸밀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장소에 무엇인가 추가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간으로 호명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게 되었네요!”라고 답했다.

교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청년기획자들과 디자이너가 직접 인테리어 하여 꾸민 공간. 오른쪽이 주방. 주말에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기획자들과 디자이너의 사무, 기획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체험형 딸기농장 운영자(아마다상) 미팅 - “아마다 가게 농원”



애초부터 아마다 상(사진 왼쪽 모자를 쓴 남자)은 시골에서 농장을 할 꿈을 꾸고 있었다. 몇 번의 실패를 겪고, 하타라보지마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청년기획자와 조우, 문화사업으로 접근 시작하게 됨. 비닐하우스 안의 풍경으로 마룻바닥은 체험형 공간(요가 등)으로 활용하고 오른쪽 딸기재배공간은 아마다상이 직접 개발한 급수 시스템과 바닥을 높게 한 화분형 재배기술을 도입, 높낮이에 따라 딸기 채집이 가능하도록 한 배려와 바닥을 청결하게 하고,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공간을 확보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방문객들은 딸기를 먹을 만큼만 채집해주어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딸기를 먹으면서 보는 일출 광경은 각별하다고 말하는 아마다상

- 아와지 하타라쿠카타치 연구소는 심각한 노령화 문제를 앓고 있는 아와지시마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의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로부터 '아와지시마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주민들 중에서 프로젝트를 빛낼 수 있는 핵심멤버(스타)를 발굴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내 외부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자 함. 하타라보지마 사업 교육 참여자 중 발굴된 2세대 스타가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아마다씨였음

- 아와지섬의 산 중턱에 위치한 아마다상의 딸기농장은 상업적인 용도라기 보다는 모두를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예약제 운영이 되고 있음.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 마련된 농장이 아닌, 딸기 농장이라는 공간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예-도서관 공간 마련, 요가교실 운영 등)를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역할을 함. 예를 들어 하우스에 딸기꽃이 만발할 무렵에는 딸기꽃 향을 맡으며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한다던지, 혹은 한쪽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다함께 영화를 상영하기도



5707번 소(13세, 히로미), 3624번 소(5세, 기쿠미), 1551번 소(7세 사쯔기),

아와시시마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 3마리를 임대. 잡초로 우거져 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던 원래의 밭을 소 먹이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기획임.

“축협은 소 사료 값이 안 들어가서 좋고, 노인들은 미처 손댈 수 없었던 밭을 살릴 수 있어서 좋고, 저희는 동네 어르신들과 사이가 좋아져서 좋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농장 방문객들에게 주민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야마다 상.

여기에도 하타라보지마의 기획자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된다.

하고, 딸기가 수확되는 철에는 4시간을 4명기준 가족단위에게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이 아닌, 공간을 마음껏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딸기농장

은 체험형 인문학 지식을 수반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간이자 운영자는 단순히 농장운동을 하는 농부가 아닌, 농업적인 형태의 공간을 활용한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음

- 최근에는 딸기농장 하우스 인근에 마을의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밭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소 세 마리를 임대하여 잡초를 걷어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밭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곡물들을 심는 등 마을 경제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 야마다상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직접 수확한 딸기와 무화과를 사용해서 야마다상의 아내가 직접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야마다 상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제 잼 가게. 부인의 잼 만드는 기술이 대단히 유니크하고 맛이 좋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상품으로 유명하다고 함



-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 이외에도 인근에 농업을 하는 지역민들이 수확한 유기농 밤과 고구마, 무화과를 사용해서 잼을 만들기도 하고, 아와지시마의 가장 유명한 작물인 양파를 활용한 소스를 만들기도 함
- 교토 시내에 위치한 백화점에 납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도록 유도함
- 주택가가 밀집한 골목에 2평 남짓한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음



4. 기타사카 양계장 홍보관



- 아와지시마에서 규모가 큰 양계장 (별도의 사육장에는 약 2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의 홍보관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여 세 개의 공간으로 분류되었으며 1개 동은 양계장 상품을 전시 판매하며, 2개 동은 양계장 및 양계장의 지역활동과 관련한 홍보관으로 운영 중. 조성 당시 컨셉은 허름해 보이되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음
- 아와지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섬 기획자가 양계장 주인과 2개월간 밤낮없는 만남을 통해 양계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가업을 물려받은 이야기, 개인적이고 자칫 사소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개인사까지 공유하고 공감을 통해, 닭의 날개를 형상화 하여 로고 디자인을 하였음

- 상품패키지 개발, 2차 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아와지 하타라쿠 카타치 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양계장 관계자 역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은 상업적이고 개별적인 작업들을 진행하는 반면, 하타라쿠카타치연구소의 디자인은 “공감”을 통한 디자인을 기본모토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통해 양계장 주인도 운영에 대해 재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고 사업의 확장성도 넓히게 되었음
- 한 곳에는 양계장에서 키우고 있는 닭들을 배치하여 홍보관을 찾는 고객들이 알을 낳는 닭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한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홍보부스로 마련된 공간에는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는 달걀은 교토에서 인기있는 카스테라를 만드는 빵집에 납품될 정도의 우수한 양질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음



디자이너와 당시 건축가였던 도미타상이 기타무라 양계장 사장과 6개월 간 상담 후 만들어진 컨테이너. 건축을 담당했던 도미타상은 "기타무라 상의 주문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도시에서처럼 깔끔하고 예쁜 건축물이 여기 들어오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허름하거나 낮은 모양이어도 곤란하다는 주문이었지요."라고 말했다. 당시 하타라꾸가타치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가한 기타무라상은 부모로부터 양계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잇는 것이 싫었다.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시골에서 양계장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워크숍에서의 강의를 통해 '지역에서 살아 간다는 것',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계기를 본 프로젝트에서 찾았다고 한다. 당시 기타무라상의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아와지시마의 식당에는 공급되지 않고 전량 외부로 반출되었으나 '아와지시마에서 생산된 것은 아와지시마에서 시작하다'는 모토로 생각을 전환했고, 그 지점에 본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두 번째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주민과의 커뮤니티를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도미타 상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컨테이너.

5. 도예가 니시무라상 갤러리



도예가 니시무라(西村)씨의 작업실을 안내하는 표지판.



계단마다 설치되어 있는 화로는 매년 개최하는 'Non-plan Party'때 사용되는 것으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해체하여 만들었다고 함.

- 니시무라상은 도예가로서, 조부 때부터 거주한 집을 리모델링 하여 갤러리 및 카페를 운영

- 니시무라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아와지섬에서 생산된 흙으로 도예를 하고 있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있어 필요한 원료 (유약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 또한, 직접 양봉을 통해 생산된 꿀을 활용하여 만든 빵 등을 판매. 지역의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최대한 활용

-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니시무라의 갤러리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오픈 스튜디오 및 지역주민대상 도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그릇에 담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노플랜(no-plan)파티 개최

- 계획과 목적을 갖는 커뮤니티 구성 및 공간 조성이 아닌 각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유롭고 즉흥적인 관계 맺기와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진정성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끌어 냄

-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은 작업을 수시로 공개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이 잡지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으며, 현재 섬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 니시무라상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키친'에 주목함. 이 공간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있음. 이 공간은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 예정임

도예가 니시무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버려진 땅에 들어가 예술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보고 자극받아 본인의 고향에 정착.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인물지 びと(피토) : 아이누족의 고어(古語)로 '인간'이라는 뜻으로 아와지섬의 지역농민, 공무원, 요리사, 건축가, 예술가 등 다양한 아와지섬 사람들을 취재하여 소개함.

그의 작업실은 흙을 사다쓰지 않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제일 크다.





도예가로서도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예술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니시무라(西村)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을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한계지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예가이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대할 때 제가 만든 그릇에 담겨질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농촌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농사에도 문외한 이었구요.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끝에, 멧돼지가 피해를 주고 있어서 밭에 걸린 멧돼지를 해체하는 일을 해서 고기라도 나누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가마를 해체해서 화덕을 만들고 요리사를 불러 멧돼지 요리를 시작한 것이 ‘논플랜파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타라보지마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결합하면서 외부의 요리사가 연결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예술가와와의 관계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とろろ

Page 2



「とろろ」は、平田麻里、西村昌民、深澤浩史の3人が、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軸に、陶器の魅力を伝えるため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立ち上げた。平田麻里は、伝統的な土器の制作に力を入れ、西村昌民は、現代の生活に合わせたデザインを追求し、深澤浩史は、陶器の歴史や文化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ている。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陶器の魅力を多くの人に伝え、陶器の文化を継承し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る。

「とろろ」は、平田麻里、西村昌民、深澤浩史の3人が、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軸に、陶器の魅力を伝えるため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立ち上げた。平田麻里は、伝統的な土器の制作に力を入れ、西村昌民は、現代の生活に合わせたデザインを追求し、深澤浩史は、陶器の歴史や文化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ている。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陶器の魅力を多くの人に伝え、陶器の文化を継承し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る。

■ 지역 문화예술활동 사례

1. 타누키 (너구리たぬき) 축제 (커모드 아트페스티벌 2016)

- 일본에서는 마을 내 상점 앞에 너구리를 마스크트처럼 활용하는데 상인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며 일본 전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서는 너구리 축제가 펼쳐짐
- 아와지섬 내에 56개 점포로 구성된 '커모드 56상점가'에서도 본 축제가 진행됨
- 본 축제는 야마구치상이 소속된 NPO법인 아와지섬아트센터에서 기획하였으며, 주최는 커모드56상점가협동조합, 총 감독은 하야시 상임
-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상가 내에서 작가들 레지던시를 진행하였고, 축제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함,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는 일본 전역에서 '전국너구리 summit'이 산발적으로 진행됨
- 본 축제 전에 '종이너구리 창작워크숍'을 실시하여, 마을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너구리



지역상가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서 아트센터에 의뢰, 개최하게 된 페스티벌 브로셔.



페스티벌 총감독 '하야시 료지' :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스튜디오해방구'를 설립하여 10년째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며, 2013년도부터 커모드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한 이래 아와지섬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너구리 설화와 전승을 테마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는 아티스트의 작품과 함께 상가 곳곳에 전시되어 있음

- 또한, 상가와 상인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를 위해 각 상점 상인을 모델로 한 축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포스터 모델로 등장하는 상인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상가 이웃이 포스터 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냄
- 방문 당일이 너구리 축제 전날로서, 총 감독 및 참여기획자와 만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10.1) 축제 방문을 통해 사례 참관함



너구리축제 공식포스터. 각 상점 주인을 모델로 제작 총 64개의 포스터가 만들어진다. 축제 전날 기획자들이 밤을 세워 포스터를 붙이고 아침에 주인공들이 눈을 뜨고 포스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축제의 시작이라는 설정이다. 축제디렉터인 '하야시'상은 주민들이 항의하지 않을까 가장 염려가 된다고 한다. 64명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 기업과 지역연계 사례

1. 오오츠카 국제 미술관(OTSUKA MUSEUM OF ART)

- 오오츠카 국제 미술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카리 스웨트의 오츠카 그룹이 창립 75주년 기념사업으로 도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설립한 일본 최대의 상설 전시공간(연면적 29,412)을 보유한 '도판명화 미술관'임. 관내에는 6명의 선정위원이 엄선한 고대 벽화로부터 세계 25개국 190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대 회화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서양화 1,000여점을 오츠카 요미도업주식회사의 특수기술에 의해 원작과 같은 크기로 재현하고 있음



- 도판 명화 미술관이란 말 그대로, 도기의 큰 판자속의 작품을 실제와 완벽 재현은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색감과 크기로 재현된 미술관임. 도판에 재현되었기 때문에 종이나 캔버스, 흙벽에 비해 색이 노후화되지 않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지하4층에 원형크기로 재현된 성당의 내부



모네의 작품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촬영도 가능. 반영구적으로 색감의 변화없이 원형 그대로 감상 가능한 것이 본 박물관의 매력이다.

2. 아와지 유메부타이(꿈의 무대) / (AWAJI YUMEBUTAI)



- 유메부타이는 간사이국제공항 등 오사카만 지역 매립을 위해 흙을 채취했던 황폐화된 터에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를 맡아 세운 식물원임. 경제활동으로 인해 파괴된 대지를 본래 모습으로 복구하여, '사람이 만든 상처를 사람의 손으로 재생한다' 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28헥타르(ha)의 면적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정비되었음. 효고현립국제회의장, 호텔, 공원, 기적의 식물원, 극장 등이 있음
- 특히, 산의 경사면을 따라 100개의 화단으로 구성된 백단원(百段苑)은 고베 대지진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헌화의 의미를 담음



■ 도시재생사례

1. 오사카 도톤보리

- 1994년 하천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년간 지속하여 도톤보리 재생사업을 진행함
- 하천 재생과 함께 도시 및 지역재생 등을 위해 하천 부지 점용허가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해 규제완화장치를 두어 하천 부지에서 상품 판매나 이벤트가 가능하게 함. 하천을 등지고 조성된 상업 건축물들의 출구 방향이 하천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 도톤보리천 수변협의회라는 지역대표 참여협의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갈등 사항을 조정함
- 지역축제인 7월의 텐진 마츠리 기간 중 전통 목선 운행 등 차별적 지역문화콘텐츠와 도심 속 친수공간의 결합을 통해 베네치아와는 또 다른 현대적 물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
- 도톤보리 하천에 놓인 에비스바시는 400년전에 놓여진 다리로서, 이마마야에 비스신사로 향하는 참배길이었던 것에서 이름이 유래됨. 다리가 생긴 이래 무려 14번이라는 재개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다리는 거리와 거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남의 명소로서 사랑받고 있음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일본 NPO단체 경기도 문화 현장 사례탐방

I. 사업개요

○ 방문목적

–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관계자 상호교류를 계기로 한국(경기도) 사례에 대한 학습 희망

– 경기도 내 문화재생, 생활문화, 문화예술 현장 사례 참관 및 기획자 교류를 위한 한국방문 추진 (자비지출)

○ 일 정 : 2016년 12월 6일(화)~8일(목) * 5일 개별일정

○ 방문인원 : 3명

○ 방 문 : 야마구치 쿠니코 (일본NPO아트센터 기획자), 도미타 유스케 (시마토웍스 기획자), 도미타 쇼코 (폐교 리모델링 공간인 아와지섬 '노마드빌리지' 운영자)

II. 방문일정

○ 사례추천

–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 생활문화팀 연계사업 위주 프로그램 추천

– 경기도 내 문화원 추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 세부일정

일시	방문지	내용	참석자 (사례소개자)	비고 (재단인솔자)	
12.6 (화)	오전	경기문화재단	일본 NPO활동소개 및 인사	문화예술본부장, 문화재 생팀장, 생활문화팀장 등	임은옥 이진실
	오후	수원 행궁동 '공존공간'	지역 문화재생 사례 및 기획자 미팅 1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 외 2인)	
		경기청년 문화창작소	공간소개 및 입주청년기획자 만남	문화재생팀 (김종길 팀장, 박정호 책임, 조민우)	
저녁	간담회	일본-한국 기획자 간담회	재단관계자, 문화원관계자, '공존공간' 청년기획자		
12.7 (수)	오전	이천문화원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참관 이천이야기(서회를 스토리텔링하다)	이천문화원 (이동준 사무국장)	임은옥
	오후	양평 세유티 마을회관	양평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소개 및 지역기반 활동 내용 소개	세유티 모꼬지 사무국장 & 양평 산중협동조합 기획자 (김지연)	
		이천 비틀즈 자연학교	이천 내 생태학교 운영 사례	이천비틀즈자연학교 (정태성 대표)	
	이천문화원	이천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소개 및 문화원 활동 동호회 미팅	문화재생팀 (조지연 선임)		
12.8 (목)	오전	경기문화재단	평택 안정리 사업 소개	문화재생팀 (조지연 선임)	임은옥 이진실
		경기문화재단	재단-문화원 기획자 간담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 등	

III. 세부내용

1. 수원 행궁동 '공존공간' 방문

- 대학생들이 모여 도시와 마을에서 지역을 재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 기획자들이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기획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공간에서 핵심멤버 3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음
- 수원 화성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2년간 수원의 또래 작가와 기획자들의 협업으로 리모델링 하여 만든 공간으로, '삶을 여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여행자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이익의 일부는 새로운 창작활동의 기반으로 사용됨
- 공존공간 핵심 멤버 3명은 공간의 주인으로서 이웃주민, 손님과 교류·관계하고 있으며, "청년", "문화", "도시(마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청년의 시작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 수원 별터마을 '문화마실' 방문



- 수원시 업무대행사업으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터 문화마을 만들기”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마실’에서 디렉터(한문희 감독)를 만나, 진행되는 활동과 사례들에 대해 소개를 받음
- 지역산업 쇠퇴와 전투기 소음 등으로 낙후된 마을에 대한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삶에 개입하는 예술과 주민의 문화주체성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3. 이천문화원 프로그램 참관 및 재단 지원사업

〈내 생애 첫 술잔〉 내용 소개

- 이천문화원의 역사,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및 주민과의 관계성에 대한 소개
- 문화원 프로그램 참관 및 활동 동호회 미팅
 - 이천 지역인물에 대한 재조명, 지역민의 관심환기를 목표로 진행된 〈이천이야기 경연대회, 서희를 스토리텔링하다〉라는 프로그램 참관. 지역인물에 대한 학습 이후, 참여자의 해석이 가미된 '서희'에 대한 내용 발표, 우수자에게는 상금 및 현장활동(해설사)기회의 특전이 주어짐
 - 일본 기획자 환영의 취지로 이천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일본어 동호회 회원들이 서희의 이야기를 번역하여 낭독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함
 - 문화원 내 자발적 학습동호회인 일본어동호회 미팅 및 상호소개 검함
-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소개
 - 〈내 생애 첫 술잔〉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짐
 - 이천의 지역문화자원인 쌀, 도자기, 술에 대한 기원, 예법 등에 대한 설명, 이천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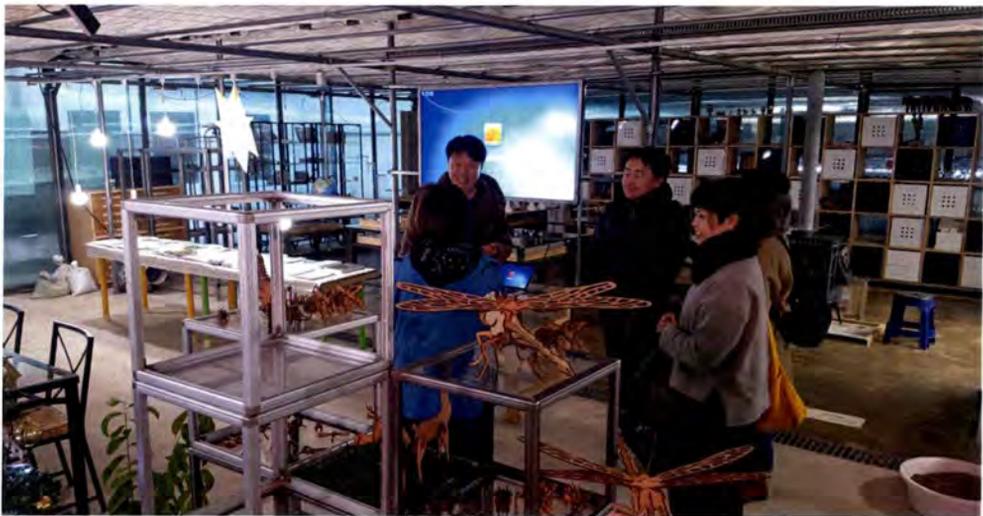
4. 양평 지역활동가 미팅 및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소개

-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두 번째 사례로 양평 산중협동조합의 프로그램 사례청취
- 2007년 양평지역 학교 교사와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기획자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기획, 양평지역 예술가와 지역주민 연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개
- 농촌 이탈현상, 고령화, 폐교위기의 상황 등에서 외부기획자가 들어와 마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와지섬 내에서의 활동과 유사하여, 매우 관심있게 사례경청함
- 사례참관 후, 폐교위기의 학교 활성화 사례, 예술가와 주민의 문화예술프로젝트 참여방식, 프로젝트를 위한 각종 기금수혜 방식 및 한국 내 문화기획자 및 지역활동가 자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했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였음



5. 이천 '비틀즈자연학교' 방문

- 고향인 이천에 정착한 누에 연구자가 생태학교 형태의 공간 오픈, 자연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및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고민, 조언을 구하고자 함
- 한국 내 지역생태자원에 대한 활용, 관광상품 연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사례 참관
- 자연학교 측에서는 하타라보지마 사업 내에서 딸기농장, 양계장 등 운영자와 협력기획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하타라쿠카타치연구섬 기획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6. 평택 안정리 사업내용 청취

- 재단과 평택시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한 평택 안정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소개 자리 마련
- 시기금을 투입해 광역재단, 작가들과 함께 커뮤니티아트 활동 등 추진한 사례로 3년간 사업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진행
- 평택 안정리 마을의 옛 지도, 철조망 등 지역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활용한 아트상품과 마을명을 활용한 브랜드 <안정맞춤> 네임택 등에 특히 관심을 보임, 이것은 지역자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디자인, 아트상품 등 유통망 확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에 공을 들인 하타라쿠카타치연구소의 활동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사료됨



IV. 교류의 의의

1. 한일 지역문화현장의 현재적 이슈 공유

- 양국 사례에 대한 참관으로 지역 문화현장의 공유, 관심의 확장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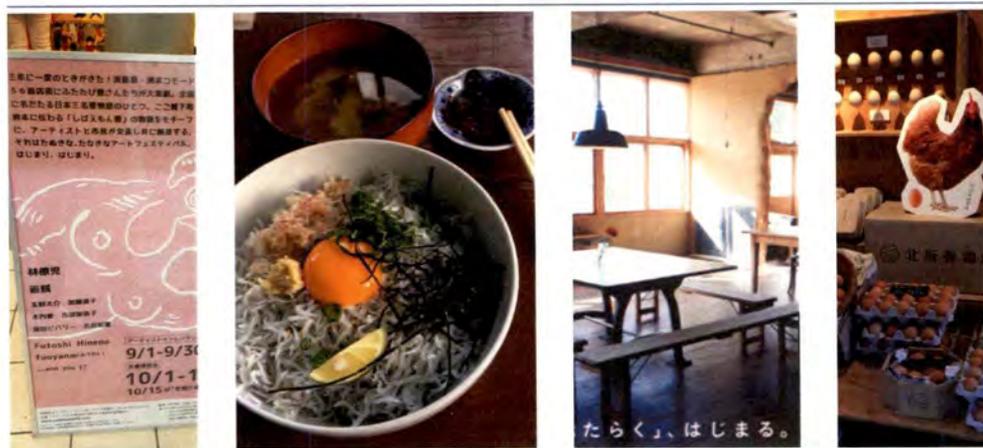
2. 국제 네트워크 교두보 마련

- 아와지섬 활동기획자 및 단체,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NPO 조직과의 교류 등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마련

3. 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타진

-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국제 협업 사업 기획
(아와지시마 NPO에 소속된 인원들을 초청하여, 별터마을 브랜딩 사업과 연계, 청년문화창작소의 청년 기획자들과 네트워킹 사업으로 발전 등)







Part 3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 콘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한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문화원형의 관광상품화,
공연콘텐츠화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원형 활용방안 모색

문화원형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2012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하여 <문화원형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로 향후 경기도 각 지방문화원이 문화원형을 개발, 콘텐츠화 하기 위한 분류를 했다.

첫 번째는 역사문화인물, 두 번째는 역사문화유적(건물 등 포함), 셋째는 자연환경, 마지막으로 지역의 민담, 설화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음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목표는 각 지역의 문화원형이 어떤 형식으로 문화자원이 되어 지역문화를 만들고 있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 차원의 지역문화원형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지방문화원이 발굴, 조사, 연구한 성과로 충분한 고증을 통해 지역예술가가 결합하여 각 지역마다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슬로베니아

수도 : 루블랴나 Ljubljana
언어 : 슬로베니아어
면적 : 20,273km²
인구 : 약 1,996,617명 (2012년 기준)

기후 : 지중해성 기후, 대륙성 기후
종교 : 카톨릭(57.8%), 이슬람교(2.4%)
주요도시 : 노보메스토, 크란, पो스토나

국가 개요

정식명칭은 슬로베니아공화국(Republic of Slovenia)이다.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하였다. 아드리아해의 피란만을 둘러싸고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연안 출구의 갈등을 겪고 있다.

위치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알프스 산맥의 동단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대부분이 알프스산지이다. 슬로베니아 최고봉인 트리글라브봉(2,864m)에서 발원하는 사바 강이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다뉴브 강에 흘러 들어 간다. 오스트리아에서 발원한 드라바 강도 슬로베니아의 북동부를 지나간다. 모두 다뉴브 강의 상류에 해당하므로 슬로베니아의 공업화에 따른 하천 오염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남부에는 석회암 대지가 침식되어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펼쳐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길이 24km에 달하는 거대한 포스토이나 석회동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기후는 대체로 서안해양성 기후이다. 지하자원은 석탄·갈탄·납·아연·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 전 국토 중 경작 가능지 8.53%, 경작지는 1.43%이며 산림 및 기타가 90%이다.

기후

2개의 기후가 있다. 아드리아 해안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내륙지방은 좀더 가혹한 동유럽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드리아 해의 해안선을 따르는 지역의 여름은 가장 높은 기온이 30°C를 밑돌아 매우 화창하고 거의 매일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북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많

은 양의 눈이 내린다. 바다 쪽에서 내륙으로 이동할 때는 조금씩 대륙성 기후로 바뀐다. 겨울은 춥고 기온은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도 평균 0°C 정도이다. 여름은 평균 20°C 정도로 따뜻한 편이다.

인구

슬로베니아의 주민은 슬로베니아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6세기부터 이주해온 남슬라브 계통으로, 2002년 현재 슬로베니아인이 83.1%, 세르비아인이 2%, 크로아티아인이 1.8%, 기타 민족이 12%를 차지한다.

언어

슬로베니아인은 남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보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

가톨릭교도가 57.8%, 이슬람교 2.4%, 동방교회 2.3%, 기타 기독교 0.9%, 나머지 36.9%를 차지한다. 남슬라브어를 사용하지만 종교가 민족 구성의 기준이 되어 복잡하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은 대부분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통화

유럽연합(EU)에 속해있으며 유로화(EUR)를 사용한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 섬머타임(4~10월) 기간에는 7시간이 늦다.

전압

220V/50Hz이다.

1. 호수의 도시 블레드



빙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호수인 블레드 호로 유명하며 블레드 호 주위에는 바위로 만든 블레드 성이 있다. 온난한 기후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귀족들이 방문했으며 오늘날에는 스포츠 활동(골프, 낚시, 승마)을 즐기려는 관광객들과 인근에 있는 산을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몰린다.

블레드 호 안에 있는 블레드 섬은 플레타나(pletana)라고 부르는 나룻배를 타고 갈 수 있다.

블레드 호 안에 있는 블레드 섬으로 종탑이 있는 건물은 성모마리아 승천성당이다. 긴줄을 통해 종을 세 번 울릴 수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줄이 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장치되어 있어서 세 번을 정확히 울리기 어렵다.



플레타나 나룻배를 타고 블레드 섬으로 이동해야 하고 저 멀리 보이는 절벽위의 성이 블레드 성이다.



블레드 섬에는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이 있는데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또한 선사 시대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지바(Živa)의 성지로 여겨졌다.

블레드 섬에는 계단 99개가 있으며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업고 계단 99개를 오른다. 이 때 신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 침묵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음식점이 없다.
사계절에 따라 호수의 색도 변하는 아름다운 장소이다.
유고연방시절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의 김일성이 특별히
좋아했던 장소라고도 한다.
이곳을 특별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다. 포
천의 산정호수, 의왕의 백운호수가 블레드 호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화원이 '자연환경'이라는 문화원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
다.

슬라브 인종의 여인들은 힘
이 세다. 이 계단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업고 침
묵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야
결혼이 성립된다는 전통이
있다.

2. 포스토이나 동굴탐험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긴 카르스트 동굴로 알려진 포스토이나 동굴,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카르스트 동굴로 종유석과 석순이 무려 20km 구간
펼쳐져 있다.



포스토이나 동굴은 현재까지 약 20km의 통로가 발견되었는데, 통로의 5.2km 구

간이 관람을 위해 개방되었고, 관람에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동굴열차를 타고 2km를 진입하고 난 후에 Calvary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로도 유명한 Great Mountain과 Beautiful cave, Concert Hall이 있는 동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1km 구간을 걸어서 관람하게 된다.

동굴과 Predjama Castle 입장료를 포함해 어른 27.9 유로, 16세 이하 어린이 16.74유로.

한국어로 된 설명 팸플렛이 구비되어 있다.

동굴에서 서식하는 생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어 (Human fish) 라고 하는데 어두운 통로에 있어 눈이 퇴화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외부 아가미를 통해 호흡하며, 약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완벽한 카르스트 지형인 Dinaric 카르스트 속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곳에서 미세 생명체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아쉽게 휴면 피쉬를 사진으로 담을 수는 없었다.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수도 : 자그레브 Zagreb
 언어 : 크로아티아어
 면적 : 56,594km²
 인구 : 약 4,480,043명 (2012년 기준)

기후 : 지중해성 기후, 대륙성 기후
 종교 : 카톨릭(87.8%), 세르비아정교(4.4%)
 주요도시 : 두브로브닉, 리예카, 스플리트, 자다르 등

국가 개요

정식 국가 명칭은 크로아티아공화국(Republic of Croatia)이며, 크로아티아어로는 레푸블리카 흐르바트스카(Republika Hrvatska)라고 한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크로아티어를 흐르바츠카(Hrvatska)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에 수립된 남부 슬라브족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원이 되었고,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 내전을 거쳐 1991년 6월 분리 독립하였다.

위치

크로아티아의 국토는 전체적으로는 초승달 모양으로 좁고 긴 달마티아 해안평야, 디나르알프스 산지, 동부의 도나우 평원 등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헝가리평야의 일부인 동부의 도나우 평원은 도나우강의 지류인 사바 강과 드라바 강 유역의 매우 비옥한 충적평야로서 농업에 아주 적합하다. 남서부의 디나르알프스 산계에는 디나르알프스 산맥 외에 엘리카펠라·말라카펠라·플레세바카 산맥 등이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뻗어 있다. 달마티아 해안평야는 침강해안으로 해안에는 익곡(溺谷)이 발달되어 있으며 연안의 1,000여 개 섬이 열도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해안평야는 지중해성 기후로 유명한 관광지 많다. 서부 유럽으로부터 에게해와 터키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아드리아해의 긴 해안선은 연안 교통에 영향을 준다. 경작 가능지는 25.82%, 경작지는 2.19%, 삼림 및 기타 71.99%(2005년)이다.

기후

남부 해안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며 북부 내륙 지역은 대륙성 기후 특징을 보인다. 아드리아해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이 따뜻하며 리예카의 1월 평균기온은 5.3°C이다. 디나르알프스산맥에서 동부 지방 사이는 온난습윤기후와 서안해안성 기후이나 겨울의 추위는 심한 편이다. 국토의 3분의 1이 삼림이지만 산지에는 식생이 드물어 양의 방목이 이루어질 뿐이다.

인구

2001년 현재 크로아티아 주민의 89.61%는 크로아티아인, 4.5%는 세르비아인이고, 그밖에 보스니아인·회교인·헝가리인·체코인·이탈리아인·슬로베니아인 등이 살고 있다.

언어

언어는 크로아티아어와 세르비아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두 언어는 아주 흡사하여 방언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두 언어를 통합정리한 형태인 세르보크로아티아어를 제정하여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크로아티아어가 공용어이다. 이 언어는 라틴문자를 사용하는 반면, 세르보어는 키릴문자를 사용한다. 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96.1%, 세르비아어 1%, 기타 언어 2.9%이다.

종교

크로아티아인은 9세기 말에 로마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87.8%가 로마카톨릭을 믿고 있으며, 그외 세르비아인을 중심으로 세르비아정교를 믿고 있는 비율은 4.4%이다. 무슬림 1.3%, 기타 기독교 0.4%를 차지한다.

통화

통화의 단위는 쿠나(kuna)로 크로아티아어로 담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비를 뜻하는데 이는 중세 시대 때 담배 가죽이 무역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주화는 리파(lipa)이다. 1 쿠나=100 리파이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 섬머타임(4~10월) 기간에는 7시간이 늦다.

전압

220V/50Hz 이다.



▲ 자다르 항구의 전경

▼ 중세시대 성당





3. 자다르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는 일리리아인이 세운 도시.

812년, 아헨 조약으로 비잔티움 제국령으로 귀속.

12세기 후반 헝가리 왕국이 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1202년에 베네치아 공화국령으로 귀속되었다.

1797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멸망했고, 캄포포르미오 조약의 결과로 다른 베네치아 공화국령의 영토가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로 귀속되었다.

1805년의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는 이탈리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뒤 다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다.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멸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라팔로 조약에 의해 이탈리아 왕국으로 귀속되었다.

이 곳이 의미 있는 이유는 보이는 성당은 고대 로마시대에 지어진 성당이고, 앞과 옆에는 중세, 근대의 문화유적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즉, 이 장소에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문화유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데 있다. 건축 양식부터 생활까지 몇 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다.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제2차 세계 대전 뒤인 1947년, 이탈리아와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으로 유고슬라비아령이 되었다.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으로 현재의 크로아티아 땅이다.

바다 오르간

사실 바다 오르간은 자다르 연수의 핵심이다. 바닷가에 오르간 모형이 크게 있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오르간 연주가 가능한 조형물이다. 사실 오르간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바닷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바다 오르간의 소리는 파도가 만들어 낸다.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가 낮은 날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날은 배가 지나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배가 지나가면 그 영향으로 파도가 밀려와서 잠깐 동안은 큰소리가 난다.

2005년 자다르시의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바다오르간은 “유럽 공공장소 설치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다르 출신의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Nikola Basic)가 파도가 칠 때 절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한다. 바람의 세기와 파도의 크기, 속도에 따라 바닷물이 오르간 안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다. 총 35개의 파이프에서 각기 다른 음을 내며 묘한 화음을 만들어 낸다. 파도가 심한 날은 귀신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단다.

태양에게 인사(Greeting To The Sun)

자다르시 리디자인 프로젝트로 또 다른 조형물이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태양에게 인사(Greeting To The Sun)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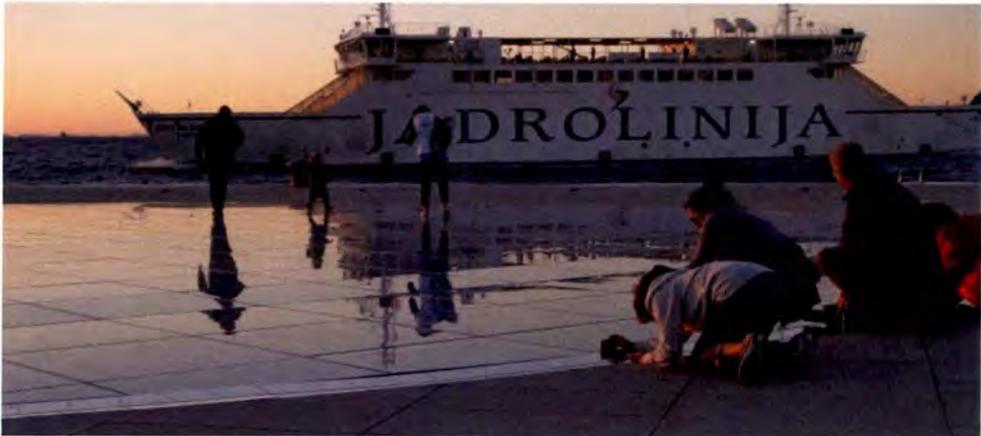


바다오르간 바로 옆에 있는데 큰 원형의 태양열 전지판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자세히보면 저 태양열판이 태양이고 그 옆으로 수,금,지,화,목,토,천,해,병 이 있다.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이 조형물은 태양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실제 사이즈 대비해서 만들어져있다. 그래서 태양을 제외하고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져있다. 테두리를 보면 각 행성의 이름이 써 있으니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다.

2005년에 만들어진거니까 그때까지는 명왕성이 태양계로 인정받던 때라서 명왕성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태양에게 인사”는 그 전지판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밤이 되면 그 에너지로 근처 가로등도 밝히고 저 전지판안에 설치된 LED에서도 다양한 빛을 내며 야경을 밝힌다.

이 곳 자다르는 세계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하루 정도 머물고 싶을 정도였다.



4. 스플리트



스플리트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정 전경 이미지. 바다를 통해 왕이 출입하는 문이 나 있다. 이탈리아에서 이 곳으로 올 때 육지를 통하지 않고 바다에서 바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새로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고 옛 건물을 그대로 활용, 리모델링하여 생활하고 즐기고 있다. 바닷가를 따라 카페가 줄 지어 있고 전형적인 유럽 카페거리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 장관이다.

스플리트(크로아티아어: Split)는 크로아티아 서남부 스플리트달마티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 221,456 (2007). 아드리아 해와 마주하는 항구 도시이며, 크로아티아에서 수도 자그레브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스플리트는 역사가 깊은 도시로, 기원전 그리스의 거주지로 건설되었다. 그 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후 305년 이 곳에 거대한 궁전을 지어 본격적으로 도시로 발전하였다. 7세기에 슬라브족



이 이 곳으로 들어와 궁전에 정착하였다. 그 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궁전은 비잔틴, 고딕 건축 양식 등의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리에카가 잠시 이탈리아로 넘어간 후 스플리트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로 개발되어 근대적인 항만시설이 갖추어졌고 달마티아 지방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아 귀중한 유적들이 보존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비롯한 옛 유적이 많아 관광객이 많이 몰려든다. 기후가 온화하고 디나르알프스 산맥과 아드리아해가 조화를 이룬 경치가 아름다워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포럼 참관 후 달마티안 민요중창단의 공연을 관람한다. 민요가수 4명이 공연을 해 주었다.



스플리트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정 내부. 바다를 통해 통로를 따라 오면 이 광장을 만나게 된다. 왼쪽이 연회장. 정면 계단으로 진입하면 당시 왕이 정치를 하는 공간들이 펼쳐져 있다.



스플리트 골목 카페거리. 에스프레소는 쓰지만 유럽의 에스프레소는 각별했다.



크로아티아는 넥타이의 본고장이다. 30년 전쟁 당시, 프랑스에 파병된 크로아티아 군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들이 '크라바트'라는 붉은 천을 돌려주었고, 이를 인상 깊게 본 루이14세가 크라바트를 따라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퍼졌고, 이후 영국으로 전파된 크라바트는 넥타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모양도 지금의 넥타이처럼 바뀌게 되었다. 가격대가 무려 700만원이나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매장 자체가 크지 않으나 크로아티아 전통문양 등이 있는 모양은 단가가 상당하다.

두브로브니크로 들어가려면 두 번의 여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크로아티아 남부에는 네움(Neum)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크로아티아가 아닌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 속한다. 따라서 네움과 두브로브니크 국경을 통과할 때 각각 한 번씩 입국 심사를 거치며, 두브로브니크 버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전경. 지붕이 모두 주황색이다. 크로아티아, 아니 동유럽 어딜가건 같은 색깔의 지붕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색이 브랜드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는 또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5. 두브로브니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길을 가진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 해의 진주' 라는 별명에 걸맞은 도시다. 이곳은 크게 구시가지를 포함한 필레, 플로체, 구르즈, 라파드 구역으로 나뉘는데, 두브로브니크 여행은 구시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시가지 전체는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16세기에 지어진 성벽의 견고함 속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다.

에메랄드빛의 아드리아 해와 붉은 색 지붕들의 조화가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성벽 내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시간이 멈춘 듯 한 곳이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이곳에서 크로아티아의 진가를 만날 차례다.

두브로브니크 관광청과의 미팅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야니체프와의 간담회. 대한민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으므로 한국어 리플릿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지역문화원형을 활용한 사례에 대한 브리핑을 함께 했다. 이 곳도 처음부터 유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지루카스의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고, 주변 경관을 활용한 지역자원관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바다를 둘러싸고 조성되어 있는 성 안의 도시의 역사성, 스토리텔링, 보존을 통해 지금의 두브로브니크가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받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두브로브니크 거리에서의 축제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광객들과 어떻게 어울리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원의 지역문화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문화원장님들.



성 안의 물을 해결하는 급수탱크. 성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어 주로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 성 안 거리. 옛 건물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이 인상적이다. 대리석이라고 한다.



두브로브니크 구 시가지 전경. 바다는 아드리아해. 성 입구 급수탱크를 시작으로 성벽 위를 일주하는 코스로 유명하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보통 2시간 코스. 성벽 걷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원장님들은 40분만에 성벽 일주를 돌파했다. 목표가 정해지면 푯대를 향해 전진하는 문화적 유전자 때문일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텐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미덕이기도 했다.



실제로 보면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입장감에 압도된다.

바위 위에 성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외부에 나갈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높은 곳에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살아야 했으니까 말이다.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항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배와 집들이다.

모양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너무 깨끗하다.

“무엇보다 횃집이 없어!”

“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

“항구인데도 비린내가 없네! 그리고 쓰레기가 떠다니지 않아.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걸까. 잘 치워서 그런 걸까 궁금하네!”

모두들 각자의 지역 그림을 그리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생각이 많아진다.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문화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첫 번째 특별한 기억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행사인 <시가예찬2016 in 남양주 _ 위대한 일상>을 참관하신 이용석 과천문화원장님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시가예찬2016 in 크로아티아>를 두브로브니크의 식당에서 개최했다.

출연진 :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 위민식 가평문화원장
 사모님

원고를 보지 않고 암송하는 실력들... 결코 짧지 않은 시였다.
 역시 문화원장은 다르다!



그렇게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인문학의 밤은 깊어가고 드디어 동유럽연수의 반환점에 접어들게 된다.

b. 보스니아 〈모스타르〉



모스타르 (Mostar)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도시이자 자치체이며,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헤르체고비나네레트바 주의 주도이다.

모스타르는 네레트바 강에 자리잡고 있으며 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모스타르는 네레트바 강 바로 위 다리를 지켰던 "다리 파수꾼들"을 뜻하는 mostari 로 이름이 지어졌다. 터키의 통치 동안, 다리가 건설되었고 모스타의 상징들 중 하나가 되었다.

다리는 1993년 11월 9일 10시 15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동안 크로아티아 방위 평의회 부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자유의 깃발이다. Don't Forget 1993. 보스니아 내전의 참혹한 날을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종교적 갈등과 맞물려 다리가 파괴되었다.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그대로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첨단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서방 여러나라의 원조를 받아 복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리 꼭대기에서 매일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려 100m가 넘는 높이에서 Don't Forget 1993을 외치며 강으로 뛰어 내린다.

모스타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관광객들은 모스타르 국제공항과 철도역, 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두보르보니크, 스플리트, 사라예보, 베오그라드 등에서 모스타르로 접근 할 수 있다. 모스타르 구시가지와 스타리 모스트는 모스타르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비숍 교구청 건물, 터키식 공중 목욕탕(하맘), 시계탑, 시나고그, 유대인 모지, 네슈-아가 부차코비치 모스크, 하지-쿠르트 모스크, 타바치차, 카라죄즈 베이 모스크, 정교회 성당, 카톨릭 성당, 프란체스코 수도원, 오스만제국 시절의 집, 비뿔어진 다리(Kriva Ćuprija), 타라 헬레비자 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7. 트로기르

트로기르(크로아티아어: Trogir, 이탈리아어와 달마티아어: Traù, 라틴어: Tragurium, 그리스어: Tragurion, 이탈리아어: Traù, 헝가리어: Trau)는 아드리아 해 연안과 접한 크로아티아의 항구 도시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스플리트 달마티아 주에 속한다. 도시 인구는 12,995명(2001년 기준), 지방 자치체 인구는 13,322명(2001년 기준)이며 스플리트에서 서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크로아티아 본토와 치오보 섬(Čiovo) 사이에 있는 작은 섬에 역사적 도시가 세워졌다. 1997년 트로기르 역사 도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에 선정되었다.

곳곳에 유럽 중세신화의 흔적이 배어 있다.

건축물을 단순히 옛 것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유럽, 서양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신화가 유럽 민족을 어떻게 규정해 왔고,
그것이 문화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서양의 철학과 문화를 책으로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거리의 풍경, 벽돌 하나 하나, 건물에 새겨진 신화적 조각상,
조형물들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학이 녹아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한국에서 보내는 일상. 거리, 건물, 자연,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이곳에 와서 느끼게 된다.
치열하게 근대를 거쳐 현대를 넘어온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낸
우리는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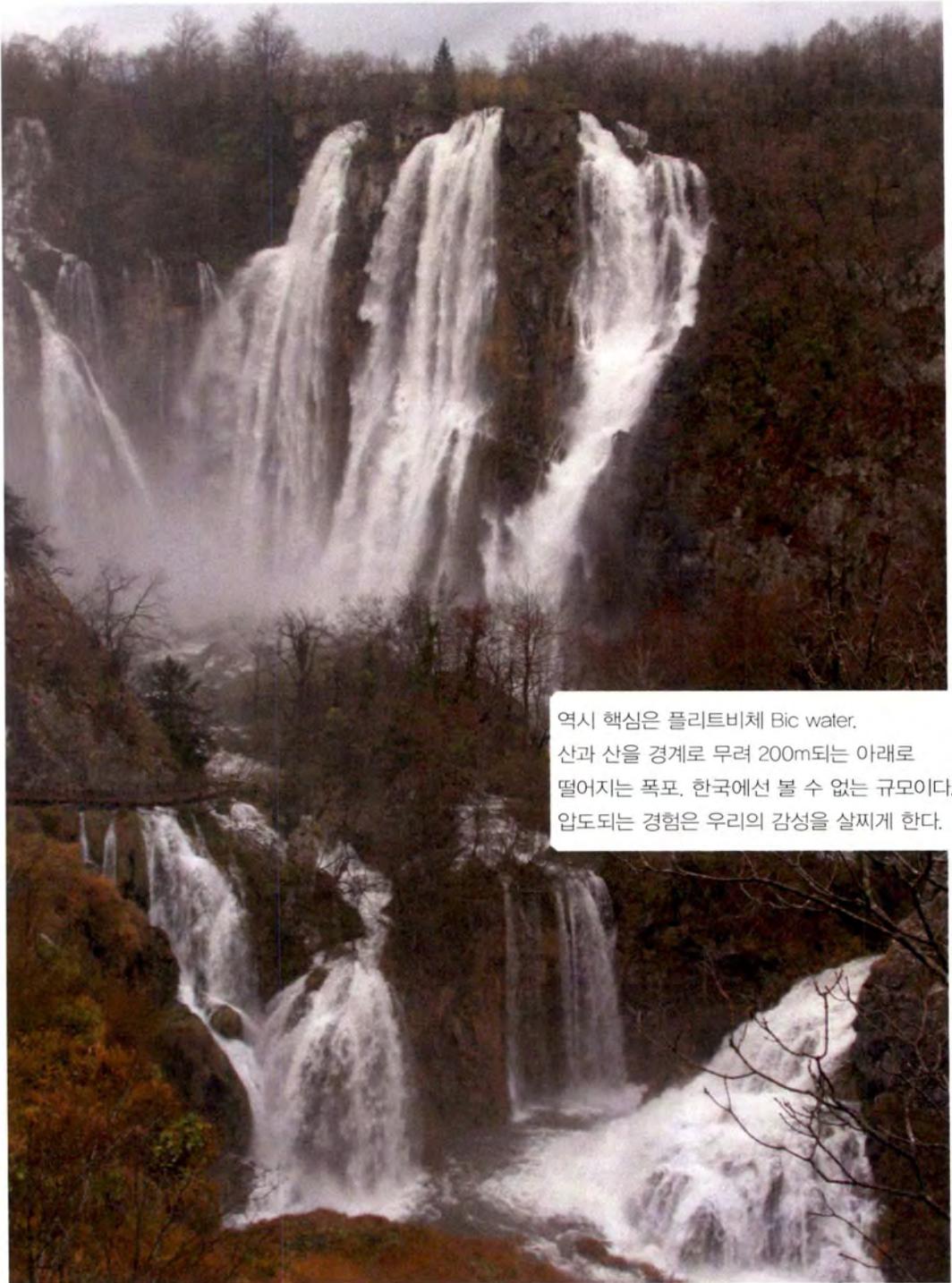
8.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자그렙(Zagreb)과 자다르(Zadar),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약 19.5Ha에 해당하는 면적의 숲으로 이루어진 이 국립공원은 곳곳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약 18km 길이의 인도교는 개울 위를 지나기도 하고, 개울이 인도교 위를 지나 얇게 흐르기도 하여 매우 상쾌한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내부의 모든 인도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등을 나무로 만들었고, 수영, 취사, 채집, 낚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의 출입도 막고 있다.





역시 핵심은 플리트비체 Bic water.
산과 산을 경계로 무려 200m되는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규모이다.
압도되는 경험은 우리의 감성을 살찌게 한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그 크기가 매우 커 구석구석을 자세히 보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공원이다.

하지만 근처의 대도시 자다르나 자그레브에서 하룻동안 들러서 보아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봄철에는 풍부한 수량의 폭포의 웅장함을 볼 수 있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진 울창한 숲 속의 신비로운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을철에는 사람이 적어 고요한 분위기와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시 사철 매력 있는 곳이다.

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으로 나뉜다. 상류부분에 위치한 백운암 계곡의 호수들의 신비로운 색과 울창한 숲의 조화가 가장 신비로운 장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류부분에 위치한 호수와 계곡들은 그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얕으며, 나무도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물은 Bijela와 Crna (하얀과 검다는 뜻을 갖는다.)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며, 모든 물줄기는 Sastavici 폭포 근처에 있는 Korana 강으로 흘러 나간다.

국립공원 내부의 방대한 양의 물은 물에 포함된 광물, 무기물과 유기물의 종류, 양에 따라 하늘색, 밝은 초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또는 회색을 띠기도 한다. 물의 색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비가 오면 땅의 흙이 일어나 탁한 색을 띠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햇살에 의해 반짝거리고 투명한 물빛이 연출되기도 한다.



9. 동화마을 라스토케(Rastoke)

자그레브에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늘 지나치기만 했던 라스토케(Rastoke). 리틀 플리트비체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간직한 작은 마을. 예전부터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마을이 지금은 아름다운 풍경에 기대어 카페, 레스토랑과 민박을 운영하는 여행지가 되었다.

작년 이 맘 때 꽃보다 누나에서 라스토케(Rastoke)가 방영되면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간혹 찾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느긋하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가는데 굳이 여기를 들릴 필요가 있을까 반문할 수도 있지만, 플리트비체로 가는 루트에 있고, 고작 30분~1시간만 투자하면 동화 같은 마을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이 곳에 살게 했을까?
물 위에 집을 짓고 이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우리와는 분명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을 사람들.
비가 많이 왔었다. 모두들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이 아름다운 마을을 오랫동안 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곳을 찾은 다른 관광객들은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다.
차분하게 보면서 '깊은 심심함'에서 나오는 사색의 창조적 가능성에 대해 무심하다.
물이 집을 통하고,
물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10.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편입되면서, 자그레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1991년에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선언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발생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에서 자그레브는 전쟁의 중심지였고, 유고슬라비아 공군으로부터 로켓포로 인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독립 이후에는 중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부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중부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기계설비, 화학, 약학, 직물, 식품산업 등이다.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는 반젤라치크 광장이다. 사회주의 시절 공화국광장이라고 불렸으나,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후 반젤라치크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광장에는 업무지구, 카페, 상가가 밀집해있으며 트램으로 자그레브 전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1242년에 타타르족에 의하여 심하게 훼손되었다가 다시 고딕양식으로 복원하고, 화재로 손상을 입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성 마르코 성당과 성 캐서린 성당 역시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또한 1895년에 건립된 자그레브 국립극장에서는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 등이 상연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붕에 크로아티아 국기와 자그레브의 상징을 함께 장식했다. 유고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독립국가적 성격도 강했다. 화합의 의미로 두 개의 상징을 장식한 건물. 전면이 시청 등이 있는 행정타운 광장이다.

크로아티아 의회 건물. 유럽연합기와 크로아티아 국기가 함께 걸려있다. 사람이 평상시 다니는 길목이 입구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낯선 풍경이다. 바로 이웃집 같은 모양으로 의회가 들어서 있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거리가. 건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건물들의 역사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설명을 통해 듣고 있다.

건물마다. 건축물에 붙어 있는 장식마다 상징으로 넘쳐난다. 몇 년 전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건물만 무사했다. 안에 있는 성모마리아 상 덕분이라고 한다. 자그레브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긴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 빈 Wien
 언어 : 독일어
 면적 : 83,871km²
 인구 : 약 8,219,743명 (2012년 기준)

기후 :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종족 : 오스트리아인, 유고슬라비아인, 독일인 등
 주요도시 : 빈, 인스브루크, 잘쯔부르크, 린츠 등

국가 개요

정식 국가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며, 북쪽으로는 독일, 체코, 동쪽으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며, 헌법에 영속적 중립성을 명시했다. '동쪽 제국'이라는 뜻의 국명은 독일어의 'Old German Ostarrichi'에서 유래했다.

위치

국토의 2/3가 동알프스의 산지이며, 도나우강과 그 지류인 인강, 무르강, 드라바강 등이 동서로 흐르면서 이루어 놓은 골짜기가 산지를 삼분한다. 이들 각각은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이다. 중앙알프스는 고기에 형성된 화강암, 편마암, 운모편암 등의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알프스 동체라고도 부른다. 남북의 산악지대는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북석회암 알프스, 남석회암 알프스라고 부르고 있다.

인구

약 97.1%가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이다. 그밖에 헝가리와 국경 부르겐란트 지방에는 크로아티아인과 마자르인, 케른텐 및 슈타이어마르크 지방에는 슬로바키아인, 빈에는 체코인이 살고 있다. 주민의 분포상태는 고르지 못하여 알프스 고지는 넓은 지역에 걸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으며, 평야지대에는 인구밀도가 높다.

언어

대부분 독일어(98%) 사용

종교

로마카톨릭교도가 73.6%, 개신교가 5.5%, 이슬람 4.2% 정도이다

통화

유로(Euro)사용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 섬머타임(4~10월) 기간에는 7시간이 늦다.

전압

220V/50Hz 이다.



11. 오스트리아

베토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성당(Stephansdom)과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쇤부른 궁전(Schloss Schonbrunn), 빈 공원(Wiener parks)등이 유명하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황금 동상 앞에서



로버트 슈만의 집



가장 유럽적인,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정신의 소유자
김문영 여주문화원장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ZE), 국제 원자력 기구(IAEA)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 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한다.

도나우강은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동맥이며, 13세기 이래 빈 남서쪽 70km 지점에 있는 켐메링 고개의 개통에 따라 빈은 동알프스 및 이탈리아와의 교통이 용이하게 되었다. 예전의 파노니엔호(湖)와 옛 도나우강의 유로가 시가지 서쪽 변두리의 '빈의 숲'이라고 불리는 산지와 그것에 이어지는 토지에 명확한 단구(段丘)를 이루어 놓았다.

빈의 숲의 작은 골짜기는 계단 모양을 이루는 산지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시역(市域)은 1,215km로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마르히강까지 펼쳐지는 광대한 마루히 평원에서 반원형으로 높아진 단구면을 포함하여 빈의 숲까지를 가리킨다.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빈의 숲은 건축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5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5km²를 차지하는 이 구역은 주로 사암(砂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슈베르트가 살던 집



중앙의 노란 건물이 베토벤이 합창교향곡을 처음으로 연주했던 장소라고 한다.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이 끊어지는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북서쪽의 중부 유럽 기후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강수량도 비교적 적은 동쪽의 대륙성 기후로 옮겨지는 점이지역(漸移地域)에 해당한다.

1월 평균기온은 0.4℃, 7월은 19℃이며 한낮에는 24℃가 된다. 연강수량은 691mm 내외이며 여름에 다소 많이 내린다. 식생도 기후를 반영하여 서쪽의 발틱 식물구와 동쪽의 파노니엔 식물구의 점이지대를 이룬다. 빈의 숲 서쪽은 너도밤나무의 숲이 무성하다. 동쪽과 남쪽은 떡갈나무와 흑송 숲이 무성하여 좋은 대조를 이룬다.

슈테판대성당



빈을 상징하는 모자이크 지붕이 인상적인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이다. 12세기 중엽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교회가 건설된 것이 시초이며, 14세기 루돌프 4세가 고딕 양식의 대교회로 다시 짓게 했다. 총 8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슈테판 대성당은 공사 기간만 65년이 소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었지만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194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슈테판 대성당은 본당의 건물 길이가 107m, 천장 높이가 39m에 이르며, 첨탑은 높이가 137m에 달한다. 23만 장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 장식이 특히 유명하다. 본당 왼편 설교단은 안톤 그람이 제작한 걸작이다. 계

단 아래와 왼쪽에 있는 조각상은 조각가 자신을 모델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聖人) 슈테판에서 유래한 것이다. 1782년에는 모차르트의 결혼식이 있었고, 1791년에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치른 곳이다. 매년 12월 31일 빈 시민은 슈테판 대성당 앞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이한다. 이때 와인을 마신 다음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정이 되면 서로 키스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유명하다.

교회 북측 탑은 엘리베이터로, 남측 탑은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슈테플(Steffl)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남측 탑은 높이가 137m에 달한다. 계단 343개를 따라 남측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슈테판 대성당의 아름다운 지붕과 빈 시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북측 탑에는 1711년에 오스만 투르크인이 두고 간 수백 개의 대포를 녹여 만든 종이 있다. 현재 볼 수 있는 모습은 1957년에 제작한 것인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한다.

대성당 지하에는 당시 장례 관습에 따라 합스부르크가 역대 황제와 후손들의 내장을 안치한 납골당(카타콤베)이 있다. 성당과 납골당을 자세히 둘러보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쇤브룬 궁정



이 훌륭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름 주거지였다. '합스부르크 옐로'로 알려진 독특한 색채의 건물은 내부에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로코코 양식이 주를 이루며 황금으로 된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 커다란 거울 등을 볼 수 있다. 쇤브룬에는 1,441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방이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녀의 남편인 황제 프란츠 1세는 쾨브룬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그들이 통치하던 시절 여섯 살 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궁전에 초대받아 여제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쾨브룬에서 1830년 출생했으며 여든여섯의 나이로 이곳에서 죽게 된다. 이 궁전은 프란츠 요제프의 아내이며 애칭으로 '시시'라 불리기도 했던 엘리자베트 황후와의 인연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쾨브룬을 매우 사랑하여 결혼한 이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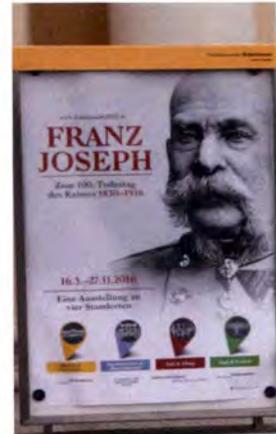
합스부르크 가의 이 궁전은 17세기에는 사냥 별장이었으며, 터키가 빈을 점령했을 때 파괴되었던 자리에 세워졌다. '쾨브룬'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샘물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왕실의 식수를 제공해 주던 천연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쾨브룬 궁전은 '글로리에테'라는 이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웅장한 신고전주의풍 아치들, 모조 로마 유적, 화려한 분수, 인상적인 종려나무 온실을 완벽하게 갖춘 눈부시게 화려한 대정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궁전에는 또한 프란츠 황제가 1750년대에 조성한 작은 동물원의 후손인 동물원도 있다. 이 동물원은 여전히 원래의 자리에 남아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때문에 동물 우리가 상당히 작은 편이다.

1918년 카를 1세 황제가 왕위에서 물러나 오스트리아는 공화국이 되었다. 그는 퇴임 연설을 쾨브룬에서 거행했고, 궁전은 공화국의 소유가 되었다. 쾨브룬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를 입어 1950년대에 복구되었다. 오늘날 이 궁전은 마땅히 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에서의 두 번째 특별한 기억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의 제안으로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음악회를 감상하기로 했다.

약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미니오페라 하우스.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를 초연한 장소로 유명한 홀! 어디를 가도 슈만, 베토벤, 슈 베르트의 이름이 나온다.





식당을 가도 음악회를 가도 입고 간 외투는 벗고 들어가야 한다.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은 한국사람이다. 연미복이 아닌 티셔츠 차림으로 음악회를 감상해야 하는 원장님들은 민망해하기도 했다.





천장이 높았다. 전혀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 성량과 악기 음량이 압도적이게 크게 느껴진다. 벨칸토 창법의 성악가는 노래 부르는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벨칸토 창법은 서양인의 얼굴 구조에 맞도록 개발된 발성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하는 표정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다. 현지 오스트리아에서 감상하는 서양 음악은 한국에서의 음악과는 달랐다.



탐방기

조 수 기 의정부문화원장

20세기 민주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양분되어 서방세계에 개방되지 않았던 동부의 발칸3국 위주의 문화탐방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인 천연 자연 자원과 그 속에 보호관리 되어온 문화유산 탐방의 신선함이 좋았고,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의 풍부한 백색 대리석을 활용한 건축물과 도로 및 보행시설이 청결한 느낌을 더욱 들게 했음.

다만 서유럽과 북유럽 등 선진관광국가에 비교하여 관광시설의 편의성과 다양성, 홍보분야가 미흡하여 관광객은 불편, 도시는 물론 지방의 거주공간인 주택·관광서, 공공건물들이 서유럽에 비교하여 소규모적이고 단순한 편으로 휴양도시로 양호함

문화유적 보존 및 관리와 탐방자 입장에서는 발칸3국에 비교하여 오스트리아가 문화의 나라답게

수도인 빈을 비롯한 크라츠 등의 도심 건물전체와 도시가로가 예술성을 살렸고, 음악당, 박물관 전시장등 문화시설이 다양하였음.

고대의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을 현대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밀감을 주고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텔링의 이해를 높이고 있는 점이 교훈적임.



■ 양호한점.

- 여행사의 사전답사 준비로 진행이 순조롭게 실시된 점.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지역 관광청과 협의 및 관계자 브리핑 성의 감사(남경필 지사 방문지)
- 문화탐방 중 때로 일일간담회 탐방평가 토론진행으로 탐방 시 발생하는 문제점 신속 해결.
- 현지에서 이벤트성 시낭송회 개최로 이동하는 문화 활동 전개
-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문화 접목현장 탐방으로 우리지역 문화 창조의 벤치마킹 가능성 탐지.
- 문화유적지 중심의 발칸3국의 자연문화유산 보존 우수지역 시찰로 새로운 감동.
-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시미관문화의 우량국가인 오스트리아 전통문화 형수로 만족감 성취.
- 카톨릭의 본산 및 성지국가의 대성당관리와 문화예술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수준 높은 문화 활동 인지
- 전통문화시설에 현대문화를 접목하는 이상적 문화발전의 모델 현장시찰(자다르 해안의 바다 오르간 +태양계 조각시설)
- 종교적, 문화적, 민족 간의 골 깊은 갈등의 흔적이 도시요소에 잔존하여 교훈적임.

■ 미흡한점.

- 문화유적지 탐방시기가 늦어 반쪽탐방으로 실효성 반감(일조시간단축)
- 탐방기간 중 역사문화 본산인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미 시찰 아쉬움
- 동부권의 생활문화와 습관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성.
- 참석 가이드 및 지역가이드(로컬 가이드)역할 분담 미흡.
- 자료수집 및 탐방보고서 작성 인력부족(전문사진사, 직원)

■ 발전과제

과제별	여행지(발칸3국)	한국
문화유적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환경 문화시설유지 ○ 기념품 판매소 정비 ○ 간판및 안내문 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잡한 유흥 음식점 집결 ○ 불량시설및 국적없는 물품 판매
문화유적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정비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격 색상 등 정비필요
관광지 안내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내자(로컬안내자)배치 ○ 역할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해설사 도입필요 ○ 지역문화 해설사 제도화
관광안내책자등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 및 리플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로 개선필요 (창의적 실시 건의)
문화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 왕궁, 성터 등에서 결혼식, 음악회,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 시설활용 확대
도시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되고 청정한 환경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질서한 돌출 간판 ○ 하수시설 쓰레기 방치
화장실및 휴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유료 사용 ○ 음수대, 벤치 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화 선호 ○ 부족시설 개선
도시교통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통행제 실시로 교통원활 ○ 관광유적지 안내시설 양호 (지도안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별 일방통행제 실시 ○ 지도안내확대 ※시가지 버스정류소 유성 안내 도입실시(창의)





Part 4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는

각 지역 문화원 소속 사무국장 대상으로 선진문화시설 탐방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외연수를 개최했다. 연수 대상국은 대만이었다.

대만과 그 수도인 타이베이는 급격한 경제 개발의 중심지이고 현재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다.

중국대륙의 한문화를 중심으로 타이완 토착민 문화, 일본문화, 유럽문화 등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을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지역이 각기 다른 문화적 특이성을 갖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문화적 다양성과 그 공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각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적격인 국가 및 도시 선정이었다는 평이다.

세부일정으로는 타이베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촌락으로 현재 지역민과 예술인이

공존하며 국제행위예술촌으로 탈바꿈한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에서 입주작가와 주민, 예술촌을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사무국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민간 주도형 마을재생 사례를 집중 연구했다.

지역민과 예술인과의 공존하면서 가능한 마을 재생 사례 탐방을 통해 각 지역 문화원에서 지역 재생의 색다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추게 됐다.

또 지역의 유휴시설인 100년 된 술 공장을 개조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화산문화지구, 구 시청사를 활용해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당대미술관, 일제 식민지 상업 및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송산문화지구 등을 방문해 도시·마을 재생 프로젝트 및 도시 브랜드 사례를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해 각 문화원의 직원들이 방문했던 동일한 국가를 사무국장들이 방문함으로써 연수 이후 한 기관에서 같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해 일정을 분석해 보다 나은 탐방 사례를 추가 보완한 작업을 통해 단순 도시재생 사례에서 나아가 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 등 재생의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려 한 기획의도였다.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해외사례탐방

이번 기획의 첫 번째 목적은 문화원형의 보존과 활용의 방법을 고민해 보고 해외 현장을 답사하면서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만의 고궁박물관은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가져 온 수많은 유물들이 집대성 되어 있는 곳이고 야류해상국립공원은 모래로 만들어진 기암괴석이 만들어 내는 신비한 자연환경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고궁박물관은 중국의 역사를 알려면 대만에 와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한 가운데 박물관을 조성, 진귀한 보물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또한 야류해상공원은 무엇보다 각각의 모래바위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 그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도록 세팅되어 있다. 또한 모래바위이기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나무 한 그루, 길 모퉁이, 바위나 돌맹이 하나 하나에 지난 역사와 관계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유구한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결과일까?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가 아닐까?

각 지역 문화원에서 발굴하고 조사한 역사 인물은 타이완만 못해서 일까?

우리나라에도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지역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문화원형들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일의 책임을 지자체 장들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이번 연수를 통해 문화원에서 가능한 것과 실현가능성의 정도를 찾아보고자 했다.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들

이번 기획에서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가 공존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대만 연수의 핵심이다.

대만 화산문화지구는 정부의 자본이 투여되어 양조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 각종 박람회 뿐만 아니라 영화관, 쇼핑몰, 식당 등

One-Stop-Culture-Cen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당대예술관은 대만의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수시로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옆 골목 초등학교 건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고, 낡은 도시 타 이베이는 일본식 건물이 여전히 즐비하다. 중국과 일본문화가 묘하게 혼재하는 곳이 대만이다. 그리고 원주민 문화도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다.

시내 중심에서 한참을 벗어나 국립대만대학 인근에 부산 감골마을처럼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장암이라는 사찰주변으로 예술가들이 살며 가꾸어 온 마을이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대충 담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집과 집을 연결하고 지나칠 정도로 가느다란 통로가 있는 희한한 구조의 마을이다.

용산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야시장은 대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대만 저우편의 경우 규모도 규모려니와 거대 자본과 프랜차이즈가 지역 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한다.

하릴없이 사라지는 건축물들이 지역의 역사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삶이 공존하고 저마다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지방문화원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자 했다.

타이완(대만)의 일반정보



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

1) **위 치** : 타이완은 태평양의 서쪽,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으로는 필리핀과 인접하여 있어 상업 및 교통의 중요한 허브지점이라 볼 수 있다. 타이완은 타원형 모양의 섬이며, 길이는 약 394Km, 넓이는 약 144Km, 총 면적은 약 3만 6000km² 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20배 이다.

(대만과의 시차 :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2) **기 후** : 타이완에는 고산, 구릉, 계곡, 평원 등 각종 지형이 있다. 대양과 대륙 중간

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회귀선이 경유하는 지점이므로, 타이완에는 관찰 가치가 높은 기후 형태가 많이 형성되었다. 북부는 아열대에 속하며, 남부는 열대기후에 속한다. 고산지형으로 인해 수직 기후변화가 큰 타이완은 열대, 아열대, 온대, 현대의 4가지 기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세계 기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봄, 가을 기후는 시원하고 쾌적하며, 여름은 낮 기온이 높으므로 대단히 덥고, 오후에 소나기가 많이 오며 7~9월은 태풍이 오기도 한다.

3) **문 화** : 중화민국의 전통문화를 현재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다.

4) **언 어** : 만다린 (북경어)은 타이완의 지정국어이며, 타이완인들 다수가 민남인 이므로 민남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있어 일본어를 구사하기도 하며, 영어와 중국어는 국민교육의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속하기도 한다.

5) **교 육** : 타이완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4년으로 한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 여행 준비 사항

① **통 화** : 통화 New Taiwan dollar (NT\$) 콰이라고도 불리운다. 지폐는 NT\$2000, NT\$1000, NT\$500, NT\$200, NT\$100가 있고, 주화는 NT\$50, NT\$20, NT\$10, NT\$5, NT\$1가 있다.

② **환 율** : 환율 40NT\$ = 1\$

환전장소 : 중정공항 내 세관검사를 빠져나오자마자 환전 가능 또는 출발 전 인천 공항, 시내에서는 대만은행이 환율이 가장 좋다. (한번에 USD \$1000 이상은 환전이 불가.)

③ **전기와 식수** : 전압은 110V, 60Hz, 식수는 생수를 권장한다.

④ 도착과 출발

비자 :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 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타이완 방문 시, 체류기간이 한 달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여권유효 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수도	타이베이
종족구성	대만인(84%), 본토중국인(14%), 원주민(2%)
공용어	만다린 중국어
종교	불교·도교혼합(93%), 기독교(4.5%),기타(2.5%)
건국일	1912년 1월 1일(개국기념일)
국가원수	마잉주(馬英九) 총통(2008.5 취임, 임기 4년)
국제전화	+886
정체	공화제
통화	신 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 NT\$)
인구(명)	23,234,936(2012년)
평균수명(세)	77.76(2008년)
1인당명목GDP(\$)	19,888(2012년)
수출규모(억\$)	3,070(2011년)
수입규모(억\$)	2,792(2011년)

타이완의 역사

3세기 중엽 중국의 삼국시대 때 심형(沈瑩)이 저술한《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에서는 타이완을 이주(夷州)로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문헌 기록으로 거의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주라는 명칭을 두고 타이완 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견도 있다. 7세기 초 수(隋)나라 때부터 한족(漢族)이 타이완을 정찰정략(偵察征略) 시도하였으며, 타이완을 유구(流求)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유구는 현재의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구분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元)은 1360년 평후섬(澎湖島)에 처음으로 순검사(巡檢司)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지만 타이완은 관할에 두지 않았다. 명대(明代)에 이르자 해상무역과 해적활동을 하는 한족의 정착이 늘어났고 동시에 동방무역에 나선 서구의 열강도 타이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명나라는 타이완을 행정 관할에 두지 않았고 원주민과 한족,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타이완을 통치하는 기구나 세력은 없었다.

1590년 동방무역을 위해 이곳 해역으로 진출한 포르투갈인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모사(Formosa)라고 명명하였다. 1616년 일본인들이 대만을 점령하려다 풍랑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후 네덜란드가 타이완 남부에 정착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동방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앞서 정착한 한족을 누르고, 이곳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였다. 1624년 안핑[安平:臺南市]에 지란디아 성(Zeelandia castle)을 구축하였다. 타이완이 중국과 일본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에스파냐도 1626년 지룽[基隆] 지방의 서라오섬[社寮島]에 산살바도르성을 쌓았다. 다시 3년 후에는 단수이항[淡水港]에 산토도밍고 성(Santo domingo castle)을 각각 축조하고 타이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1642년에 에스파냐를 타이완에서 격퇴하고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661년 명나라가 청에 패망하자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부하를 이끌고 타이난[臺南]에 상륙하여 지란디아성을 점령해서 네덜란드인을 항복시키고 타이완을 항청복명(抗清復明)의 기지로 삼았다. 1662년 정성공이 죽고 이후 아들 정경(鄭經)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체제와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673년 청나라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서 대륙으로 진격하여 푸젠성 일대를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1680년 하문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다시 퇴각하였다. 정경이 중국 대륙 진출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사망하자 대만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분으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1683년 6월 청(淸)이 타이완으로 진격하자 3번째 정(鄭)씨 왕인 정극상이 청나라에서 요구한 변발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였다. 이로써 정(鄭)씨의 타이완 지배는 불과 3대, 22년으로 끝났다. 다음해인 1684년 청은 타이완을 푸젠성에 예속시키고 타이난에 타이완부(府)를 설치하였다.

청나라는 1884년 프랑스와 청불전쟁(淸佛戰爭)이 일어나자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듬해 타이완을 하나의 성(省)으로 격상시키고 순무(巡撫)를 파견했다. 그러나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타이완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타이완 주민들은 타이완 순무이던 탕징쑹(唐景崧, 1841~1903)을 총통으로 추대하고 타이완민주국(臺灣民主國)을 선포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 5개월 동안 각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무력항쟁을 벌였으나 패하면서 타이완민주국은 붕괴되었다. 타이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45년 10월 25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새로 이주해

온 외성인(外省人)과 원주민인 본성인(本省人)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어 1947년 2월 28 일에는 '2·28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內戰)에 패배한 국민당(國民黨)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난징(南京)에 있던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를 타이완의 타이페이(臺北) 시로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 시원, 검찰원의 5권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당 1당지배정치를 펴온 타이완 정부는 1949년 이래 계속 실시된 계엄령을 1987년 7월 해제하였으며,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징궈(蔣經國)가 사망한 후 부총통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1월에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예상 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 타격을 주었다.

1991년에는 타이완 수비사령부를 해체하고 진먼섬 계엄을 종식하였으며, 1992년에는 사상경찰제 및 타이완 경비사령부를 폐지하였다. 1993년 11월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 1994년 7월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던 총통직선제 개헌안 승인을 거쳐, 1996년 3월 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직선총통이자 제9대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 3월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의 후보 천수이벤(陳水扁)이 렌잔을 꺾고 총통으로 선출되어 50년 이상 계속되어온 국민당 체제가 중단되었다. 2001년 12월 1일 제5기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진당이 제1당으로 도약하였으며 그후 2004년 3월 20일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50.12%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때 야당은 3월 19일의 천수이벤 총통 피격 사건으로 국가안전체제가 발동되어 군인과 경찰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고법원에서 모두 기각 패소하였다.

2004년 12월 11일 실시된 제6대 입법위원 선거에서 야당(국민당, 신민당, 신당)이 입법원내 과반수(113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民進黨 89석, 國民黨 79석, 親民黨 34석, 台聯 12석, 新黨 1석, 기타 10석)되고 이에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위원수 1/2 감축, 소선거구제 채택,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실시, 국민회의 해산 등 헌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국민대회는 동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천수이벤 총통의 측근 비리혐의로 국민당, 친민당 주도 하에 타이완 정치사상 최초로 총통파면안이 입법원에 제출되었으나 2006년 6월 27일 부결되었다. 2008년 3월 마잉주(馬英九)가 제12대 총통에 당선되었다.

타이완의 문화

타이완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륙문화와 태평양의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문화 유산이 다양하다. 중국의 한(漢)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한때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도 했으며 서유럽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중첩되어 있다.

경극(京劇)은 중국 무대예술 중 가장 잘 알려진 연극 분야이지만 타이완의 오페라는 경극의 지역적 변형으로 표준어 대신에 푸젠 방언을 사용한다. 중국대륙의 창초우 지역 민요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일부 레퍼토리는 남부 푸젠성 민요와 타이완 원주민 민요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소의 역할, 배우들의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이 타이완식 경극과 베이징식 경극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 중의 하나로서, 푸젠성 남부 방언으로 공연되는 꼭두각시놀음이 공연되는데, 능란한 손놀림, 목소리, 흥내, 재미있는 사설들이 볼 만한 장면들을 연출한다. 경극과 마찬가지로 이는 북과 징의 반주로 시작되는데 오늘날에는 중국식 악기와 서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깔린다. 손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놀음은 과거의 종교적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풍성한 농산물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보통 여름에 무대에 올려지며 마리오넷 꼭두각시놀음은 신의 가호를 기원하거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공연한다.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 20세기 초의 일본식 건축물 및 근대 서구식 건축물 등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양식의 건축물들이 많다. 타이난이나 루캉곽 같은 타이완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의 건축은 유럽의 고딕식 사원이나 일본의 정원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기본구조가 전형적인 U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또는 2층의 건물로 처마가 매우 가파른 기와지붕의 중국 고대양식 건축물들이 지방에 산재되어 있다. 타이완에는 또 주로 청대(清代: 1644~1911)에 건축된 사원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절들이 많이 남아 있다.

타이완과 한국과의 관계

1948년 8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의 총통 장제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1966년 대통령 박정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 수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92년 8월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단교하였다. 1993년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하게 되었다.

2004년 9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0년의 대한(對韓) 수출 39억 800만 달러, 수입 89억 8800만 달러로부터 2006년의 수출 92억 8700만달러, 수입 129억 9600만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교역 규모는 서로에게 5대 교역국의 위상을 가져다 주었다.

타이완의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사무용기기, 컴퓨터 보조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음극선관 등이다. 한국과 타이완은 경제발전단계가 상호 유사하여 양자간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재지 거류증 소지자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한국인 교민이 있으며, 이 중에서 유학생 1,410여 명, 영주교민 약 700명 등이다.



1. 대만 고궁박물관과 총렬사 그리고 중정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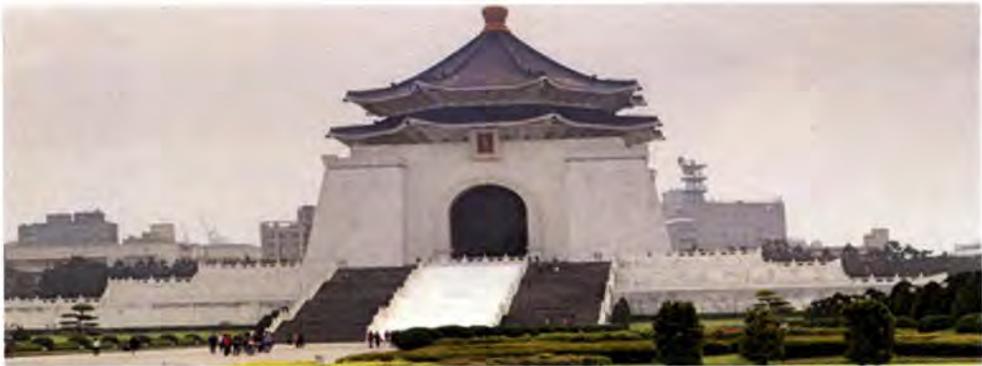
타이베이(台北)시는 타이완에서 가장 큰 도시로 타이완의 정치, 경제문화의 중심이다. 타이완은 타이베이인들의 성실한 노동과 훌륭한 계획의 결과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다. 30년 전만 하여도 논밭이던 곳에 유리현관의 고층 업무용 빌딩, 호화로운 콘도미니엄, 그리고 현대식 백화점과 가로수가 줄지은 대로가 있는 도시로 변화했다. 멋지게 차려 입은 시민들은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정찬을 즐기고 최신 음악의 멋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국제적인 스타들의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공연에 참석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저변에 깔린 현재의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는 관광객에게는 신비롭게 보인다. 오래된 사원에서 평안을 비는 신도들과 폭죽이 터지는 거리를 다니며 정성스런 종교의식을 갖는 사람들, 수천 년간 사용되어온 한약을 파는 조그만 가게, 전통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 모습 등, 시내 여러 곳에서 오래된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에서 어디를 구경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타이베이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다면성의 도시이다.

국립 고궁 박물관은 민국14년에 정식적으로 완성 됐으며, 주요 수집품으로는 청나라

자금성의 진귀한 보배가 있으며, 송, 원, 명, 청나라의 물건이 수집 되어 있다. 서화, 옥기(玉器), 도자기, 조각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황궁 귀족들만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다. 전쟁 등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진 후, 모든 물건들은 모두 대만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이곳의 교통이 편리 하지 못해 54년에는 타이페이 외곽 쌍계지역 에서 새로 건축하여, 이를 중산 박물관으로 명명했다. 국부 손중산(손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타이베이로 확장 이전하여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 고궁 박물관은 중국 역사 문화의 전승과 연구에 큰 공헌을 주었고, 이는 또한 많은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원인이 되었다. 고궁의 정원은 매화형으로 4층 건물에 5개의 큰 홀과 20여 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전시품이 특색에 따라 영구적인 전시와 테마적인 전시로 구분을 했다. 전방에는 지선원이 있으며, 이곳에는 8곳의 승경이 있으며, 왕희지(王羲之)의 천하제일 행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건축을 설계했고, 7,000여 평의 넓고 아름다운 곳이다.



중정기념당은 장개석 총통을 기념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민국 65년 건설하였으며, 타이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외관은 흰색의 대리석으로 팔각형의 파란색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앞에는 붉은색의 화단은 자유, 평등,박애의 신성정신을 상징하고, 양쪽에는 각각 국가 희극장과 국가 음악청이 있다. 이 두 곳은 동일하게 황금색과 붉은 기둥으로 중국 전통의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당 내에는 문물 전시실, 시청각실 및 장개석 기념실 등이 있고, 다원화의 기능으로 설계하여 건축 및 인문,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합이라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충렬사는 북안로와 명수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로는 청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는 기룡(基隆)강도 있다. 이곳은 1969년에 항전시기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33인의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충렬사는 매우 넓은 곳으로 건축 외관에는 북경의 고궁 태화전을 모방하기도 했으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민국 58년에 완공 되었다. 현재까지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명소로 특히 매 정시마다 위병들의 교대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 사진과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있다.



2. 대만 타이베이 화산문화지구



타이베이의 감성적인 공간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산문화지구”. 짙은 도심의 한복판에서 낭만을 만끽하며 걷기에 이만한 장소가 또 있을까 싶다. 1914년 건축된 이 건물의 용도는 본래 양조장 이었다. 그러다 그 기능이 종료된 후 폐 건물로 방치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남길 것은 남겨두는 의도적인 리모델링을 실행한 탓에 양조장이었던 당시의 흔적과 세월에 헐거워진 벽면들이 건물 내부의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살리고 없앨 것의 구분없이 오로지 깨끗하고 새롭게가 미덕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클래식한 건물이 빛어내는 운치 있는 풍경에 웨딩촬영은 물론 영화나 광고의 단골배경이 되고 있다.



화산문화지구탐방기

하남문화원 과장 김혜연

이곳에서 문화 탐방을 자유롭게 하고 중식을 각자 해결해야하는 미션 아닌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단체여행의 편안함과 규칙적인 틀에 매여 있던 나에게 좀 더 흥미로운 관심으로 다가왔다. 전체적으로 첫인상은 낯고 한산한 느낌이었다.

1914년 양조장이었던 이곳은 1987년 문을 닫을 때까지 대만의 가장 큰 양조장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 후 방치되었던 건물을 2007년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지구로 탈바꿈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창고건물은 일반인 동아리, 학생, 예술단체에게 임대해 주고 패션쇼, 연극, 전시,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활기차게 열리고 있다. 폐건물로 방치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였지만 낯고 옛 스런 건물을 곳곳에 남기고 부분적인 공사만을 하여 발걸음의 진행과 함께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자가 된 듯 한 기분이 들었다.

11월의 푸르름을 가득 품은 건물의 외벽에는 담쟁이 넝쿨로 도배가 되어 성능이 썩 좋지 않은 나의 디카에도 전문가솜씨의 사진을 가득 담을 수 있었고 어느 곳이나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여행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 대만의 정서와 풍경을 정리하고 나의 정서적 순화작용을 마무리 하는 공간으로 제격이었다.

곳곳에서 웨딩사진 커플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네들의 포즈를 따라 나도 한껏 멋을 부렸다.

대만을 여행하며 둘러보다 보면 낯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약간의 공사를 하여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은 위험해 보이고 새로운 건물에 익숙한 나의 눈에는 하찮은 건물로만 치부되었지만 화산문화지구의 건물을 탐방한 후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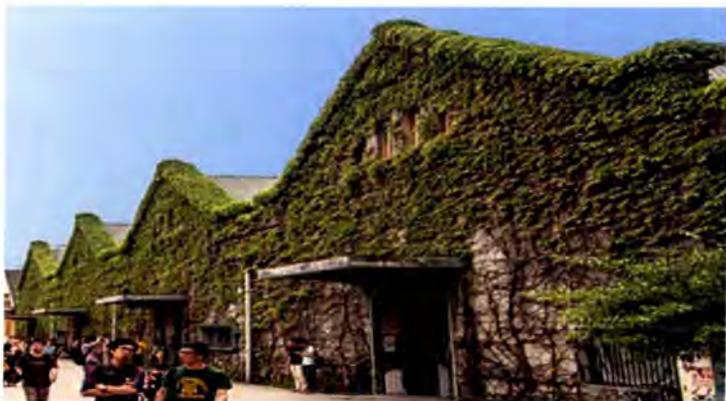
새로운 건물들은 좀 더 깔끔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진득한 오래된 숙성의 맛이 없는데 반해 이곳의 느낌은 오래되고 저 오래된 1900년대 초반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내가 소속 된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아마 우리나라의 인사동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

옛것을 보존하고 현대화 하여 우리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문구일 수 있다. 대학교 다닐 때 인 것 같다.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했다. 경복궁의 시야 확보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선택에 집중을 했지만 건물은 한번 짓거나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당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어찌 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처럼 느껴졌다.

나의 반대는 그 당시 반대 의견과 비슷했다. 후대에 남겨 우리의 우울하고 참혹한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자는 것에 찬성을 했다.

만약 지금 그 건물이 있었으면 독도영유권 문제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아베정권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운 듯한 행보에 달갈이라도 한판 던질 수 있는 화풀이 대상이라도 좋지 않았을까? 일본인중고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자기네들이 점령하여 통치하던 집무실로 아무리 자부심을 갖은 들 우리학생들과 후대에게 뼈아픈 역사바로세우기를 그 자체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잠시 격양된 감정으로 살짝 옆으로 갔지만 철거는 아무 때나 가능하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교훈을 보기 좋게 준 것이 아닌가 한다.



3. 대만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처



보장암 국제예술촌은 대만이 해방이 된 후 1960년~70년대 사이에 산 기슭의 경사를 따라서 불법 이민자들의 판잣집들이 지어져 형성된 마을로, 한 때는 철거될 뻔 하였으나, 마구잡이로 지어진 이 판자촌이 독특하게 타이베이 현대식 건축물과 어우러져 있어 주민들의 철거작업 반대로 인하여 보존된 마을이다. 2004년에 마을 전체가 역사 건축물로 지정되어 예술가들이 하나 둘 작업실을 차리고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로 타이베이 여행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뉴욕타임즈에 선정되었다.



4. 대만 용산사와 화시지에 야시장 문화

용산사는 청 건륭3년에 지어졌으며, 사찰에는 주신을 복건성 진강현 안해향 용산사의 관세음보살과 함께 모시고 있으며, 삼진사 합원의 전형적인 전통 건물로 앞에는 용의 기둥 한 쌍과, 중간에 용 기둥 4쌍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사찰의 지붕은 오리고 붙이는 전통 예술 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색체의 유리와 자석으로 장식 되었으며, 용, 봉황, 기린 등의 길한 동물로 더욱 특색을 주었다.



화시지에 야시장은 용산사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찾는 명소중의 하나이다. 화시지에 야시장 입구는 중국전통 건축양식으로, 붉은색 궁등을 걸어놓아 무척 특색이 있다. 화시지에 야시장은 먹거리 위주의 시장으로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가지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즐비하다. 특히 뱀, 자라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어 먹거리의 특색을 한층 높여주며, 밤이 되면 뱀을 잡거나 뱀싸움을 보여주는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분위기는 떠들썩하며 타이완 사람들의 열정과 활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5. 저우편



저우편이라는 이름은 9가구의 농가가 살고 있었던 이곳으로 조달되는 생활물자를 9개로 나뉘었던 것에서 유래됐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때 금광 채굴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심야에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광부들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았다. 금이 고갈되어 열기가 식었지만 영화 비정성시와 온에어 드라마에 촬영 장소로 인기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산의 급경사면을 끈게 올라가는 계단 마을에는 화려했던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건물 및 커피숍, 기념품점이 많아 항상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6. 대만 레시피 _ 대만의 음식문화

평택문화원 최 실 비

■ 숨결 따라 걷는 길

대만의 풍경을 보기 전에 느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대만의 향기이다. 대만은 씩씩하면서도 톡 쏘는, 진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하다. 어느 나라가 그러하듯, 그 나라의 향기에는 무구한 역사의 흔적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대만의 향기 역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이 가득 담겨 있다.



일찍이 '일리 포모사(아름다운 섬)'라고 유럽인이 불렀던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 아열대와 열대에 걸치는 기후에 높은 산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민족의 음식들이 융합되어 독특한 음식문화를 발전시켰다. 대만은 전

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원주민, 푸젠성 등에서 비교적 일찍 대만에 도착한 사람들, 1945년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건너온 중국 각지의 사람 등으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다. 광활한 대륙의 여러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들 덕분에 대만은 중국의 여러 지방의 문화가 골고루 섞이게 되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중국의 갖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원난 등 중국 대륙의 다채로운 요리를 두루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많다. 요리 방법과 식품재료의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중국 각 지방의 대표되는 요리들을 최고의 맛으로 그것도 저렴한 값에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비슷하다고해서 같은 건 아니다. 향신료가 강하게 쓰이고 다소 느끼한 중국의 대륙 음식과는 달리, 섬나라인 대만은 간이 심심하고 담백하다.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를 주 재료로 하며 상큼하면서도 달고 신맛이 특징이다.

■ 음식 풍경

대만에서는 하루 세끼를 모두 밖에서 사먹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외식문화가 대만에서 발달한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여성의 권익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의 집에는 부엌이 아예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덕에 대만은 먹거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대만의 음식은 주로 '식사를 차려 먹는다'기 보다는 서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포장음식과 즉석식품이 많다. 대만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은 우리나라의 편의점과는 다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즉석식품을 찾는 고객들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야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야시장은 적어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노점상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야시장으로 형성됐다. 청나라시대부터 푸젠성과 광둥성에서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이주해온 한족들은 황무지를 개간할 시기에 평안을 빌기 위해 너나없이 도교사원을 세워 신을 모시는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대만사람들에게 고사찰 옆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마치 신불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것 같은 오래되고 특별한 정신적 맛이 담겨있다.

대만의 야시장 점포의 배치는 설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옷가게 옆에 국수가게, 장난감가게 옆에 한약점포 등이 무질서하게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야시장의 특색이다. 온갖 종류가 함께 있어 곳곳이 놀랍고 재미있다.

한껏 구경을 하다가 무엇을 먹으려면 무더운 환경 속에서 고생스럽게 줄을 서야한다. 하지만 이것이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음식을 받아드는 순간의 성취감 때문이다. 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보다는 '먹는 것'에 있는데, 이는 야시장 구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많은 야시장들이 유명한 것은 특유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분과 계란으로 부친 굴전 위에 케첩소스를 얹어 먹는 '굴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취두부', 생닭을 망치로 두드려 넓게 튀겨내는 '지파이', 뱀을 죽여서 만든 갖가지 요리들 등 스테미너 음식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종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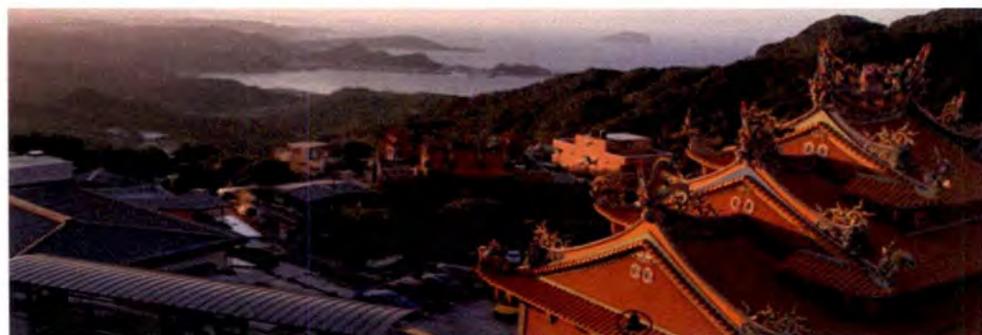
헤아릴 수 없이 음식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음식의 다양함은 대만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음식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의 큰 음식점도 주목할 만하다.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한 큰 음식점에서는 서양식 코스처럼 음식이 순서대로 나온다. 먼저 쌀밥과 요리를 먹고 탕은 나중에 먹는데, 차거나 마른 음식에서 따뜻하

고 국물 있는 음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음식점의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샤오롱바오'이다. 샤오롱바오는 만두피가 얇고 고기가 잘게 다져져 육즙과 함께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고기 육즙이 만두피 아래에 가득 고여, 이를 함께 즐기는 것이 묘미이다. 두 번째는 '훙궈'이다. 훙궈는 매콤하고 얼큰한 마라탕과 시원하고 담백한 야채탕이 반반씩 나뉘어, 그 국물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끓여 먹는 대만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와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는 대만의 '차'도 주목할 만하다. 일찍부터 차의 효용성에 눈을 떠 정부의 지원 하에 차나무 수종 개발이나 제다법, 포장 및 수송 운반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도 한 몫을 했다. 아열대기후의 북부지역과 열대기후의 남부지역은 모두 연평균기온이 20℃를 넘고 연간 평균 강우량은 2,515mm으로 차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배경과 환경에서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루었기에 대만의 차는 그들의 생활 속 어디서나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깊이 자리잡아 '차 문화'가 되어 그들의 생활의 미학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만은 '식도락가의 천국'이라 부를 수 있다. 대만의 요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귀중한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들과 더불어 그들이 아끼는 관광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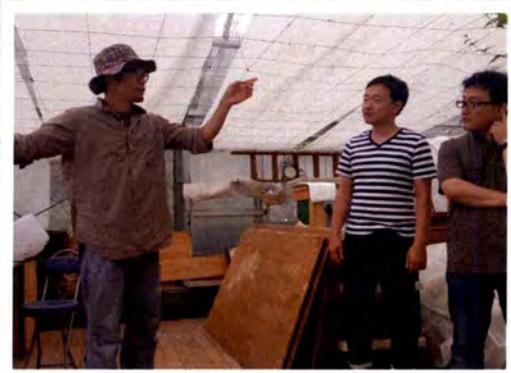
www.38.it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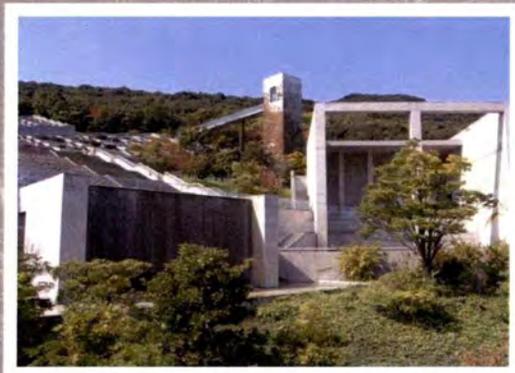
하₂게 하 기₂ $\frac{3}{7}$ $\frac{2}{3}$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Part 6

하₂게 하 사랑₂프₂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연수단장 : 염상덕

기획 : 최영주

운영 : 박현미, 진숙, 오다에



함께한 사람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신현분 수원문화원임원

김만중 가평문화원장

위민식 가평문화원임원

이용석 과천문화원장

윤옥섭 과천문화원임원

박형재 부천문화원장

전명재 부천문화원임원

홍성준 양주문화원장

최애숙 양주문화원임원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김문영 여주문화원장

이보금 남양주문화원장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정경철 동두천문화원장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박계일 군포문화원장

김 철 가평문화원사무국장

류연일 고양문화원사무국장

김성준 광명문화원사무국장

이범재 광주문화원사무국장

윤승민 구리문화원사무국장

장기명 군포문화원사무국장

이형섭 남양주문화원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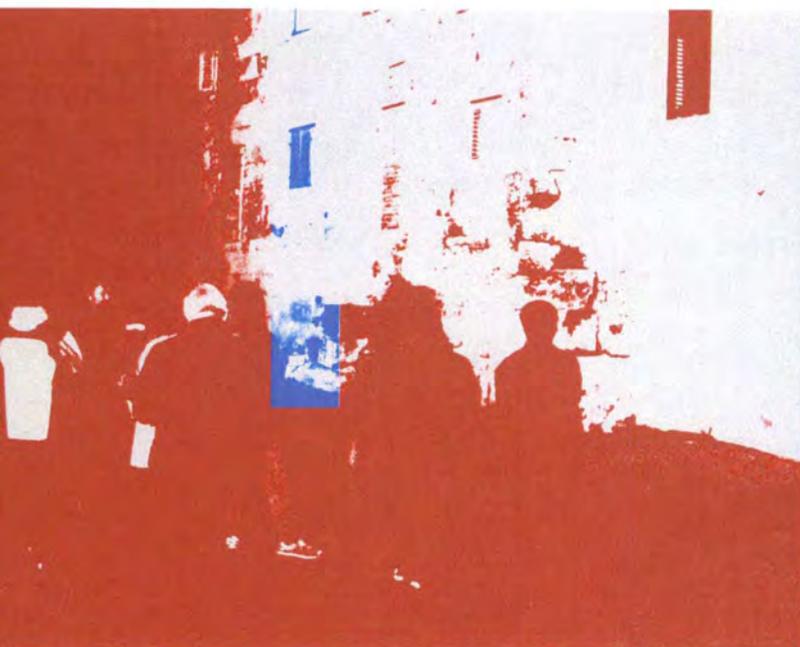
박용철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성노경 안산문화원사무국장



박재홍 양주문화원사무국장
 왕윤식 연천문화원사무국장
 김장환 용인문화원사무국장
 이동준 이천문화원사무국장
 이상범 하남문화원사무국장
 김경민 포천문화원사무국장
 오민영 평택문화원사무국장
 강윤구 화성문화원사무국장
 전봉진 양평문화원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
 진 숙 경기도문화원연합회총무팀장
 민경화 경기신문기자
 최의열 부천문화원사무국장

박현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업팀장
 오다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연구원
 임은옥 경기문화재단생활문화팀
 이진실 경기문화재단문화재생팀
 이충림 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팀



Epilogue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연수 합평회



우리가 해외에 함께 간다는 것은...

-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외 연수의 성과가 결국 지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얻어가는 것이다. 매년 해외로 연수를 다니지만 연수를 연수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연수 마지막 날에는 토론회가 되었건, 합평회가 되었건 간에 연수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해외 연수라는 것이 단순히 관광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함께 먹고 자면서 친해지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그렇다. 이런 일체감은 경기도 전 지역에 우리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단히 든든한 일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해외 연수지역 선정과 의미에 관하여

- 대만의 저우펀은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제반 인프라도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가격은 대단히 비쌌다. 하지만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환경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아름다웠다. 가기 어려운 부분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곳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 부산의 감골마을이나 동해의 논골담길도 유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나 저우펀 정도로 개발된다면 얼마든지 지역의 동네와 골목길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국제교류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장을 보고,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연수에서는...

- 단체로 몇 십 명이 이동하려니, 많은 것을 보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중간에 만나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좀 힘들었다. 여유 있는 일정으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다.
- 단체로 갈 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재단 지원 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소규모 연수단이 파견되어 깊이 있는 탐방과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연수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2016 경기문화재단지원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로컬(Local)을 디자인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2016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의 허락없이 무단도용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 자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